

Healthy Dream, SCH!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것
은것이
얼마나
당신은
제
인생
중
한
사람
이
니
다
다
시
로
어
우
원
히
함
께
하
고
싶
습
니
다
다
시
로
하

하늘 뜻 받들어 인간 사랑을 실천합니다

환자와 마음으로 소통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1등 품격으로 세상을 진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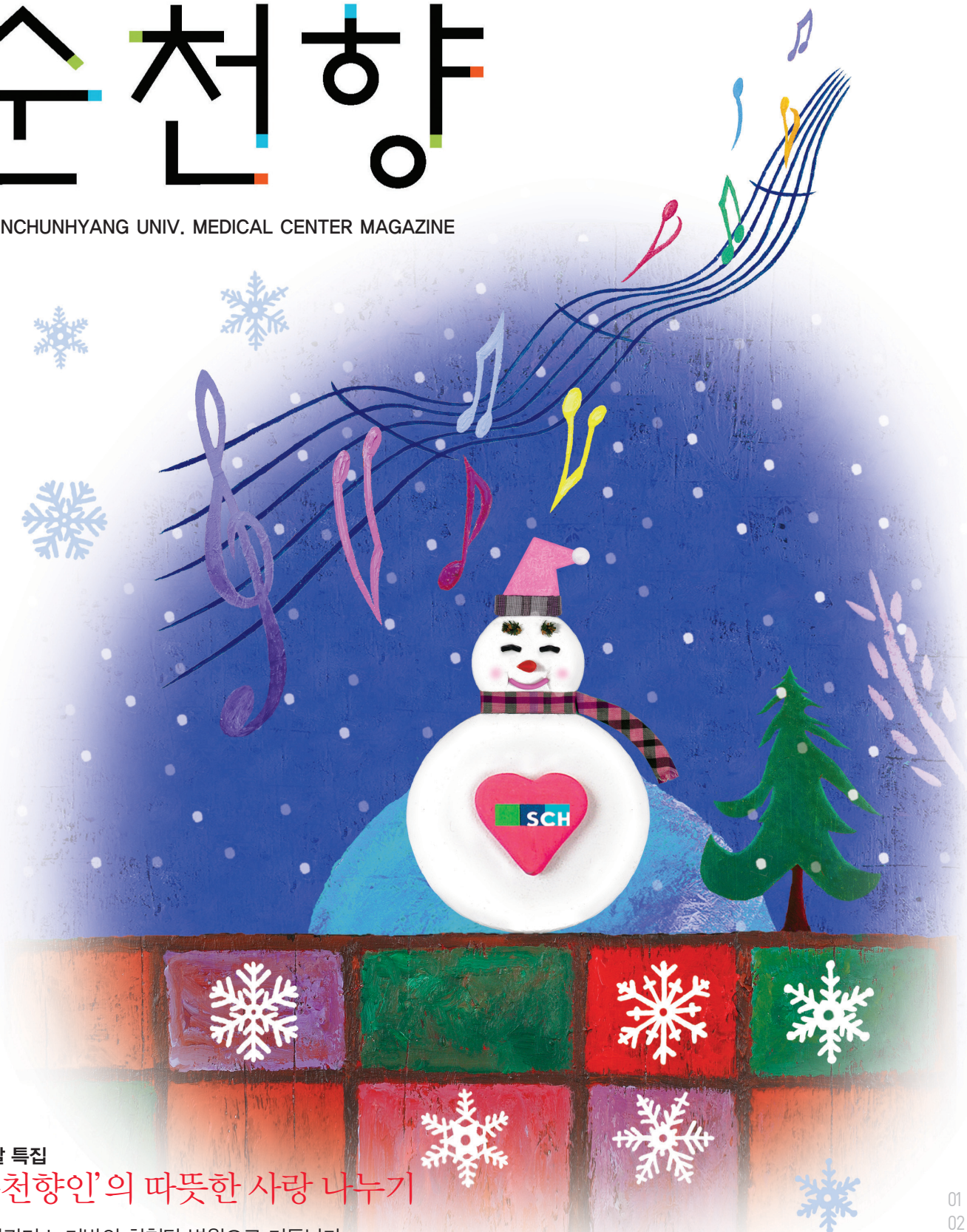
SCH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한남동 657)
<http://www.schmc.ac.kr>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 의료원보 2011. 11/12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연말 특집 '순천향인'의 따뜻한 사랑 나누기

유비쿼터스 기반의 최첨단 병원으로 거듭난다
6천7백만분의 1의 기적을 이룬 의사
인터뷰_탤런트 신애라

SCH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2011
통합 의료원보 Vol.0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봉사 아닌 사랑을 나눠요”

일회성 지양...365일 진심어린 사랑으로 지역민과 함께 호흡

201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연말이면 독거노인, 보육시설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아쉽게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순천향인에게는 나눔의 때가 없다. 의료 봉사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나눔 행사가 연중 펼쳐지고 있다. 순천향인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 나눔의 순간들을 담아보았다.

글_조영곤 사진_임운석

사랑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그들이 있다.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구성원 모두는 1년 365일 쉼 없는 사랑 나눔으로, 마스한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201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순천향인들의 '365 사랑 나눔 운동'은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끄러운 일회성 봉사라는 단상에 일침을 가하는 한편, 진정한 의미의 봉사 즉,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주요 언론을 통해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며 기념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연중 10여 일 남짓한 반짝 관심에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생각보다 큼니다. 도움이요?”

분명 필요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모 보육원 원장은 일회성 봉사보다는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말로, 사회에 대한 섭섭함을 간접 표현했다.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제2의 의료봉사 개념으로 사회봉사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사랑을 나누며, 제 자신도 마음 속 보이지 않는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다. 봉사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줬으면 한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어르신 또는 아이들의 각종 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농활부터 해외 의료봉사까지 전방위 사랑 전파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의 사랑 나눔은 농촌 일손 돕기부터 해외 의료봉사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료원이 소재한 서울·부천·구미·천안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 사랑 나눔으로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부서별 전방위 사랑 나눔이 특징이다. 원무팀, 시설팀, 영상의학팀 등 각 부서는 매주 1회씩 보육시설, 중증장애우시설, 노인복지관, 치매지원센터 등을 찾아, 설거지 등 뒷정리부터 재활 보조 및 치료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사회공헌 활동과 해외 의료봉사의 메카다. 특히 교직원의 자발적 후원 모임인 '나눔터' '사랑의 끝전페기' '사랑의 바자회'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이 돋보인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백의천사의 모임 '사랑회'의 활약이 눈부시다. 600여 명의 간호부 직원들이 매월 1,000원씩 모은 기금과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김홍수 교수의 후원금,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져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주변에는 농가가 상당하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농가의 고민은 부족한 일손이다. 구미병원측은 '농촌 일손 돕기 봉사팀'을 결성해 과실 수확, 비닐하우스 제거, 퇴비 운반 등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자발적 참여, 지역과 함께하는 병원 되고파”

서울병원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꾸준한 사랑 나눔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 2월부터 두 달 여에 걸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수요처를 조사했다. 이후 4월부터 사랑 나눔을 본격화 했다. 원무팀, 시설팀, 영상의학팀, 방사선종양학팀, 의료정보팀, 보험심사팀, 물리치료팀, 영양팀 등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1회씩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아동 양육시설인 혜심원, 영락보린원, 중증장애아동 보육시설 영락애니아의집과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치매지원센터를 찾아 사랑을 나누고 있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점심 배식을 비롯한 식당 설거지 및 뒷정리를 돕고 있다. 원무팀 직원들이 참여하는 혜심원 봉사 역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두 시간씩 영아들을 돌보고, 식사를 보조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병원이 수탁 운영 중인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봉사활동은 격주 간격으로 토요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매주 팀원들을 이끌고 혜심원 봉사를 주도하고 있는 원무팀 김의택 기장은 “가끔은 귀찮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자원봉사를 마치고 나면 가슴이 뿌듯하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참여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인 혜심원의 방매영 사무국장은 “순천향대학교 병원 직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고, 의료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치료와 진료까지 봐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병원은 이 같은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 외에도 지하철 역사 및 용산역사 의료봉사 활동, 영락 보린원과 애니아집, 중증장애인 시설 의료봉사 활동, 다문화가정 무료진료 활동으로 인간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봉사 활동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송지영 사회사업팀장은 “자원봉사는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지 참여하는 직원들의 반응도 좋고,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관계자들도 아주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나눔의 실천은 ‘사랑’입니다.”

부천병원은 설립과 동시에 사회공헌 분야에 있어서 남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 2001년 7월 결성되어 지속되고 있는 지역사회 의료봉사가 2002년부터는 한감봉사회의 해외 의료봉사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교직원들의 자발적 후원 모임인 ‘나눔터’ ‘사랑의 끝전페기’ ‘사랑의 바자회’ ‘쌀 나눔 행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간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바자회’는 전 교직원의 참여와 열정으로 꽃 핀 부천병원 교유의 나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차례 걸쳐 개최된 사랑의 바자회는 알뜰장터, 먹거리 장터, 체험마당, 친환경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장터 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된다. 특히 알뜰장터는 교직원들이 바자회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기만 하는 ‘일방향 기부’가 아니라 교직원들이 깨끗하게 손질해 기증한 물품 등을 판매하는 ‘양방향 기부’ 형태로 운영돼 그 의미가 크다. 전 교직원의 참여로 수거된 물품들은 매해 평균 1,500점에 이르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큰 규모의 바자회가 열렸던 지난 2004년, 2006년, 2008년 3회 동안만 1,100여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이는 모두 생활이 어려운 환자, 캄보디아 심장병 환자, 지역 꽃밭 가꾸기 기금, 지역 사회복지관, 군부대 등에 후원됐다. 또한 개원 10주년을 맞아 더욱 큰 규모로 올해 11월 8~11일 실시된 ‘제9회 사랑의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집계 후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9년에는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부천병원 교직원들과 한화 리조트가 공동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 부천 시내 독거노인 400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기도 했다.

의료봉사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천병원은 향후에도 교직원 한 명, 한 명이 생활 속 나눔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사회공헌 1등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 피우는 사랑의 전령사”

천안병원은 그늘진 곳,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이웃의 깊게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워주는 사랑의 전령사가 있다. 소리 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백의천사 봉사모임 ‘사랑회’다.

‘사랑회’는 1993년 9월 간호부 직원들이 뜻을 모아 탄생했다. 600여 명의 간호부 직원들이 매월 1,000원씩 모은 기금과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김홍수 교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사랑회 활동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면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져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후원은 정신지체 손자를 양육하는 할머니, 자식이 있으나 부양받지 못하는 할머니 두 분,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간호하는 할아버지 등을 비롯해 정신지체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예수 가족(임마누엘)’, ‘사랑의 집’, ‘해누리 청소년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어르신들께는 매월 소정의 후원금과 함께 월 1회 방문해 청소 및 설거지 등을 비롯해 건강 상태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말벗도 돼 드리고 있다. ‘예수 가족’과 ‘사랑의 집’ 등은 분기별로 방문해 생필품, 식품, 의료용품 등을 전달하고, 청소와 빨래, 목욕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후원금을 전달받는 어르신들은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잊지 않는다. 봉사자들의 손을 일일이 꼭 잡아주며 “사는 맛이 없었는데, 잊지 않고 찾아와 주고 이렇게 큰 도움을 줘서 정말 살맛이 난다”고 말이다. 매월 봉사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개개인의 1,000원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위력에 놀라게 되고 정말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느끼며 오히려 그분들의 감사하는 모습에서 겸손과 자족함을 배우게 된다고, 봉사자들은 말한다.

사랑회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나눌수록 기쁨이 더해짐을 알기에 좀 더 후원할 곳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천안병원 사회사업실 등을 통해 의뢰를 부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곧 새로운 분들을 후원할 계획이다. 사랑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곳이 있다면 후원 대상자를 넓혀갈 것이라고 한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이웃사촌”

구미병원은 30여년동안 지역민, 공단 근로자들과 호흡하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백내장 등으로 인해 앞을 못 보는 불우 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개안술을 실시하는가 하면 IMF위기를 맞은 실직자를 위한 진료비 할인혜택제도와 우수한 지역의료인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사업 등을 해왔다.

구미병원은 또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든든한 이웃사촌이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농촌일손돕기 봉사팀’은 인근 해평면, 장천면, 선산읍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과실수확, 비닐하우스 제거, 퇴비운반 등 농촌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농촌일손돕기 봉사는 농산물의 존재감과 중요성,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보람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봉사팀의 가족과 아이들도 동참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이들의 봉사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가중되는 어려운 현실속에서 한줄기 희망이 된다고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농촌과 관련한 이같은 봉사 활동은 2000년도 국가차원에서 의 가뭄 대책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성금을 전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전달된 성금은 농촌지역 양수기 지원사업에 쓰였다. 또한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영동지역 농민들이 허망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구미병원은 수해지역에 의료봉사단을 급파, 긴급진료에 나서 따스함을 전해주기도 했다. 이밖에 구미병원은 김장철이 되면 오천환 병원장을 비롯한 부서장이 직접 담근 김치를 지역 독거 어르신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의료혜택이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와 의료기관 최초로 지역 학대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화창한 5월 어느 아침이었다. 기지개를 켜 후 화장실로 향하던 이리아 카르레젠코브(Ilya Kharloshenkov, 남, 25세)는 이때만큼은 180cm가 훌쩍 넘는 큰 키가 거치적거렸는지 부엌 찬장에 가볍게 머리를 부딪쳤다. 그리고는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다.

이 날의 사건이 모든 절망의 서막이 되어 버릴 줄 이리아와 가족들은 몰랐다.

긴박한 순간이었다. 당시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구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리아를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그러나 빠른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이리아는 수술 후 부작용으로 반신마비라는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됐다. 전직 러시아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일본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을 만큼 건장했던 그가 이제는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을 끝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에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감이 찾아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축구선수로서의 꿈이었다.

어머니의 '아들 사랑' 집념으로 찾아낸 '한국'

모든 사람들이 이리아의 상태가 개선될 수 없을 것 같다고 포기했을 무렵, 여전히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가 있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시 문화부 공무원 팀장으로 재직 중인 이리아의 어머니 빅토리아 카르레젠코브(Victoria Kharloshenkov, 50세) 씨는 이리아의 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방법을 찾고 또 찾았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국 의료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주변의 이

“다시 푸른 잔디 위를 달리고 싶어요”

뇌출혈로 반신불수 된 러시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부천병원에서 다시 축구 선수의 꿈을 쓰다

모두가 포기한 러시아 축구의 유망주.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어머니가 찾아낸 곳은 가까우며 의료 수준이 최고라는 한국이었다. 지난 7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팀으로부터 뇌동정맥기형(AVM) 수술을 받았다. 결과는 '기적'을 낳았고, 그는 재활 치료에 돌입해 다시 꿈에 도전하게 되었다.

정리 _ 편집부

이리아의 어머니는 이리아의 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방법을 찾고 또 찾았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국 의료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맡길 곳은 '한국'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아기를 접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맡길 곳은 '한국'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태의 아들 이리아가 배를 타고 이동하기에도 짧은 거리의 한국은 최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의 수술...결과는 '기적'

시간이 흘러 7월 초 이리아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찾게 되었다. 충분한 검사가 진행된 후 이리아는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에게 뇌동정맥기형(AVM)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미 러시아에서 수술을 받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후에 진행된 2차 수술이었기 때문에 이리아의 수술 결과에 보호자와 의료진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다.

결과는 놀라웠다. 반신마비 상태가 모두 회복된 것이었다.

“입국 당시 뇌출혈에 의한 좌측 상하지 마비 상태였어요. 뇌출혈 원인인 뇌동정맥기형의 근치적 제거, 뇌출혈 제거 그리고 두개골 결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술을 한 번에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생활이나 운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귀국해서 꾸준한 물리치료와 운동요법을 병행하면 축구선수로 다시 뛰고 싶다는 소망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범태 교수가 이리아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기쁜 뉴스를 전했다.

어메이징 코리아...한국 의료는 5점 만점에 5점

김교수가 전한 희망 뉴스를 눈을 반짝이며 이리아가 말했다.



“돌아가면 재활 치료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예전처럼 다시 푸른 잔디 경기장을 날아다니고 싶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불편한 점이요? 전혀 없었어요. 특히 친절히 대해주시고 외국인의 저에게 무척 큰 힘이 됐습니다.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5점은 러시아의 만점 기준이라고 한다. 어머니 빅토리아 씨도 들뜬 아들에 이어 한마디를 보냈다.

“축구선수로 활약하며 그동안 너무 건강하게 지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반신 마비가 됐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을 보통의 건강한 남자로 만들어줘서, 나의 아들을 돌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푸른색의 큰 눈을 깜빡이던 어머니는 러시아에 가서라도 꼭 감사편지를 쓸 거라며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이 수술을 받기 전 푸른 잔디밭을 누빈듯 능글픈 모습의 사진을 몇 장 병원으로 보내왔다. 1년 후에는 아들이 예전처럼 경기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겠다는 인사와 함께였다.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주의보

기침이 지속되는 성인은 반드시 검사로 확인하고, 영유아 접촉이 많을 때는 백신접종 필요



글 _ 서기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근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질환 백일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얼마 전 2달 사이에 우리 충청 지역에서는 만성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 20명 중 9명에서(접촉자 4명 포함) 백일해 양성 반응이 나와 보건 당국도 긴장을 했다.

발작적인 기침이 100일 동안 지속된다는 것에서 이름이 유래한 백일해는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가장 감염 빈도가 높고, 1세 미만의 영아에서는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영아가 감염될 경우 기관지 폐렴, 경련, 뇌손상 등 치명적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다.

원인균은 Bordetella pertussis라는 백일해 세균으로 인간이 유일한 숙주이며,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거나 기침을 할 때 튀어나온 작은 침방울에 의해 호흡기로 전파된다. 백일해의 위험성은 가족이 영유아에게 백일해를 옮길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 경로는 75%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돌보거나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백일해 감염이 영유아에게 전염되어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9월에 인후염 환자를 대상으로 백일해균 감염 실태를 조사했는데, 1533명 중 28명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중 10세 이하에서 19건, 11~20세에서 7건, 21세 이상에서는 2건이 검출되었다. 또 2009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주관해 시행한 국내 성인 백일해 감염 실태조사에서도 741명 중 4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해마다 보고된 건수가 적고, 주로 소아에서 많았기 때문에 점차 사라지는 병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 2달 사이에

(7~8월) 전국적으로 64명 검사에서 15명이 양성 나왔고, 이 중 충청권에서 9명이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10세 이하는 2명, 11~20세는 2명, 21세 이상은 5명이었다.

접촉자 감염은 2명의 환자에서 발생했는데 24세 엄마가 우선 감염되고 아빠, 아들, 딸까지 전 가족이 감염되었다. 또 다른 감염자는 48세 엄마로 아빠는 괜찮았지만 15세 아들에게 전염되었다. 이처럼 백일해 전염은 가족 중 성인 감염 후 어린 자녀들에게 전염되는 경로를 거친다.

최근 들어 백일해 감염이 대두되는 이유는 어려서 맞은 백일해 백




신에 대한 면역력이 감소되어 청소년이나 성인에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 또한 자녀의 예방접종을 미루거나 맞지 않는 부모들이 늘어나 집단 면역이 무너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백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백신을 철저히 맞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후 2, 4, 6, 15~18개월에 각각 한 번씩 DTaP 백신을 맞고, 만 4~6세에 한 번 더 접종을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때 만 4~6세 때 추가 접종을 놓치게 되면 10세 이후 면역력이 떨어져 백일해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 접종을 챙겨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Td백신 접종은 만 11~64세까지의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매 10년마다 권장되는데, 이 중 1회를 백일해 항원이 들어있는 Tdap백신 접종으로 대체한다면 성인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 출산 직후의 산모, 영유아와 접촉이 잦은 가족, 영유아를 돌보는 보모 및 육아시설 종사자, 의료인들은 반드시 백일해 백신 추가 접종을 챙겨야 한다. 감염되면 일단 환자는 발병 후 약 4주간 또는 기침이 멈출 때까지 격리시켜야 한다. 2주간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항체 여부를 확인 후 예방 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성인 백일해는 주로 만성 기침만을 유발하지만 주변 가족 중 영유아에 감염되었을 때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성인에서 기침이 오래간다면 반드시 백일해 감염으로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하겠다. 

심장질환치료의 '전문 센터' 로 '우뚛'

심혈관조영기 도입으로 심장질환 치료에 희망 꽃 피워...

심혈관조영술 2000건, 경피적심혈관중재술(PCI)800건, 경피적혈관성형술(PTA) 120건 시행

정리_ 편집부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심장 및 혈관 질환도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심장혈관질환이 전 세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암에 이어 심장혈관질환이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고 있다.

이에 최첨단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구미병원 심혈관센터는 지역 심혈관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진일보된 수술 기법을 선보이면서 경북권 대표적인 심장전문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심장질환자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심혈관센터

심장질환은 무엇보다 90분 이내에 응급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북 중서부권내에는 심도자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없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된 환자가 타지역으로 후송되다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컸다. 이에 구미병원은 2009년 5월 심장질환의 신속한 진단과 수술이 가능한 심혈관조영기(필립스 사 Allura Xper FD20)를 도입하고 심장질환자의 응급처치 및 치료,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중환으로 내원한 급성심근경색 환자에게 경피적심혈관중재술을 시행하고 있는 구미병원 심혈관센터 의료진

이 장비로 급성심근경색처럼 응급을 요하는 질환에서부터 만성심부전, 고혈압처럼 꾸준한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질환은 물론 고지혈증, 동맥경화, 부정맥, 심판막질환, 협심증 등 여러 심혈관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그에 따른 중재적 수술이 가능해졌다.

●경이적인 검사 건수 및 수술 기록

심장내과 김도희 교수를 중심으로 최근 2년동안 심혈관조영기를 이용한 검사와 중재시술 건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3,000여 건을 달성했다.



일본 아사히 사쿠라 교수 초청, 난이도 높은 CTO 공동수술.

세부적으로는 심혈관조영술(심장혈관검사) 2,000여 건, 막힌 심장혈관에 풍선을 넣어넣거나 스텐트를 삽입해 막힌 심장관 상동맥을 뚫어주는 경피적 심혈관 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은 800건, 심장뿐만 아니라 팔다리, 경동맥 등 좁아진 혈관에 적용되는 경피적 혈관 성형술(PTA,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도 120건이나 된다. 단일 검사 장비로 지역에서 2년 만에 이 건수를 달성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심혈관센터 의료진들의 밤낮없이 펼쳐 온 환자 치료에 대한 열정과 값진 희생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24시간 응급 심장질환 치료, 진료 시스템 갖춰

상주에 사는 장민호(63·가명)씨는 가끔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느꼈다. 그러던 지난 10월 초 새벽, 흉통이 심해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놀란 가족들은 119에 연락할 겨를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순천향 구미병원 응급실로 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전도 검사상 급성심근경색 판정을 받

은 김씨는 심혈관센터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투여하고 심혈관 시술에 들어갔다. 심장내과 김도희 교수는 심혈관조영기사로 막힌 부위를 찾아내 풍선확장술로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혈관을 잡아주는 그물망)를 삽입해 피가 잘 통하게 했다. 병원 도착에서 수술까지 50분 걸렸고, 장씨는 숨을 되찾아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흘 뒤 퇴원하면서 건강을 회복했다.

구미병원은 이와 같이 심혈관 질환을 빠른 시간 내에 진단, 시술할 수 있는 윈스턴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응급심장질환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올해 초 2명의 심장내과 전문의 김태훈 교수와 안지훈 교수를 영입해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심장내과는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각과의 긴밀한 협조로 진단한 후 환자 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방법을 결정,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은 성과로 이어져

전문 의료진의 구성되어 있는 심혈관센터는 김도희 심장내과 주임교수와 김태훈 교수, 안지훈 교수를 중심으로 각 분야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관센터 전문 간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교수뿐만 아니라 전담교수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요원의 전문화를 위한 관련 교육 이수, 주 1회 심혈관센터 컨퍼런스를 열어 예방을 목표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분석', '관상동맥질환 중재술 및 스텐트 종류에 따른 협착' 등의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일본의 아사히사쿠라 교수를 초청해 심장질환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알려진 CTO(Chronic Total Occlusion 만성폐색병변)를 공동으로 시술하는 등 지역에 우수한 의료기술을 선보이며 한 일 의료기술 교류도 갖고 있다.

이 결과 지난 8월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연구회로부터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빠르고 적절한 치료가 요구되는 심혈관질환의 중재시술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재시술 의료인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 심혈관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미병원이 경북권 대표 심혈관 전문 의료기관임이 검증됐다.

순천향 중앙의료원, 유비쿼터스로 진화한다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병원 모델 제시...시·공 초월한 의료 서비스 구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최첨단 디지털 병원으로 탈바꿈한다. 2013년 8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진일보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 진정한 4-Less(chartless, slipless, filmless, paperless) 실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_조영곤



건강 사회 선도하는 일류 병원 발돋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인간 사랑을 구현하고, 건강 사회를 선도하는 일류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섰다. 지난 8월 10일 관련 분야 선도기업인 현대정보기술과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MOU를 체결하였고,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에 산하 병원 전산 시스템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동은정보기술(주)과 협업하여 2013년 8월을 목표로 병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병원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내·외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병원측에 따르면 ▲의료 기록의 본격 활용과 분석 및 100% 예측이 가능한 임상데이터웨어하우징(CDW) ▲모든 경영 자료와 원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원 경영의 실시간 분석 및 예측

정희연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은 "공적사업 추진을 통해 인간 사랑 구현과 건강 사회를 선도하는 일류 병원으로 발돋움하겠다"며 "현대정보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경수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과 그동안 개념상에서만 존재했던 의료정보 데이터의 가치 재창출을 현실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정보시스템 구현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백년대계, 환자 중심의 병원 시대 개막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세계적 수준의 첨단 디지털 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사업 기간 동안 약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급변 환경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이 가능한 EDW ▲경영충을 위한 경영자 정보 시스템(EIS) ▲효율적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자원 수명 관리(ILM) ▲대형 포털 수준의 완벽한 환자 정보 보호 체계 구축 ▲진료 기록의 전산화를 통해 신속한 환자 진료를 도모하는 EMR(전자의무기록) ▲병원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ERP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바일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유비쿼터스 병원의 구현도 이뤄진다. 언제 어디서든 응급, 외래, 입원 환자의 진료 및 검사, 처방 기록의 조회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진료의 안정성 및 진료의 질 향상, 환자 대기시간 감소와 정보 저장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의이기도 하다.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차트(Chart)'가 없는 첨단 디지털 병원으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분실과 훼손의 위험이 있었던 수백만 권에 달하는 차트가 전자 파일로 재탄생하는 것. 차트 전자화의 혜택은 바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역시 병원의 디지털화는 환자에게 집중하고, 좀 더 편리하게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환자 중심의 병원을 선언한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100년을 내다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으로, 몸으로 기억할 수 있게 가르치다

‘세브란스 의대의 명강사’로 제자들의 기억에 남은 서석조 박사

정리_ 편집부

의과대학생들에게도 신경내과는 새로운 분야였다. 서석조 박사는 귀국과 동시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내과 조교수로 부임해 1960년까지 교육을 담당했다. 신경내과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의 권위자였으므로 다른 병원에 자문을 해주기도 했다.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섬세한 교재도 없고 신경의 분포와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모델도 없었다. 그래서 오직 구두로만 강의해야 했던 시절, 서 박사의 열정적인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서 박사는 사투리가 심했지만 그의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서 박사의 강의에는 남다른 특징이 있었다. 다른 교수들과는 달리 노트 하나 없이 강의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전달할 의학지식은 모두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 있었다. 학생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필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너저들은 필기 해 갖고 나중에 그 노트 보면서 환자를 볼래? 필요없데이. 내가 강의하는 걸 듣고 암기했다가 그대로 하거라.”

칠판에다 단숨에 척추 단면을 실물 그대로 그리

따로 필기를 하지 않아도 서 박사의 강의는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당시 세브란스 의대에서 그에게 수업을 받은 제자들은 기억한다. 서 박사는 이론에 해박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 중에도 실례를 들어가며 머리만이 아니라 손으로,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르쳤다. 환자 대신 학생 한 명을 앞에 불

러다 눕혀놓고는 신경반사 테스트를 직접 해보이는 식이었다. 서 박사의 특기는 분필을 양손에 쥐고 단숨에 척추 단면을 실물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었다. 칠판에 쓰는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의학 교육에 필요한 도면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냈다. 미국 의학 당시 밤을 새워가며 해부 실현을 한 덕분에 이런 특기가 생겼다고 한다. 서 박사가 그려 보여준 해부학적 구조를 신경 기능과 연결해서 공부하면, 나중에 뇌 해부도만 보면 뇌의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긴다는 것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다.

명 강의로 이름을 날린 덕분인지 서 박사는 1년 만에 내과 주임교수로 승진했다. 후에 가톨릭대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연세대 학생들이 반발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학생들은 서 박사가 세브란스에 남아주기를 요구하며 다른 강의를 보이콧할 정도였다.

박사 학위 취득과 뇌졸중 치료에서 올린 성과


1960년 가톨릭의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서석조 박사는 가톨릭의대 내 과학 교실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치고 수석 레지던트로서의 경험까지 쌓았지만, 전문의 과정과 박사 과정은 마치지 않고 돌아왔



서 박사의 강의에는 남다른 특징이 있었다. 다른 교수들과는 달리 노트 하나 없이 강의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전달할 의학지식은 모두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 있었다. 학생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강조했다.

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학위도 필요하다는 노교수들의 강권과 부탁에 못 이겨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0년 ‘위에 미치는 알밤의 효과’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박사 1호를 기록하였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밥이 성장과 내분비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 논문은 지금도 여러 학자들에게 많이 인용되고 있다.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하다

박사 학위를 일찍 받았느냐 늦게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것에 상관없이 서 박사는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나라 신경내과학의 일인자였다. 신경과 담당 의사들이 대부분 신경정신의학회가 아니라 내과 학회에 흡수되는 것을 안타까워한 서 박사는 일찍부터 신경과학회의 설립을 주장했다. 1961년에 내과 학회에서 <뇌졸중 환자 100례에 대한 임상적 관찰>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뇌졸중이란 용어는 박사가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1963년에 대한의사회에서 선정하는 숙제 보고로 <뇌졸중>을 발표했다. 뇌질환에 중요한 진단방법이었던 X-선 뇌혈관 촬영이 뇌졸중 진단에 필수라고 강조한 이 숙제 보고는 신경외과학회보다 앞선 연구 성과였다. 박사는 의식이 없는 뇌졸중 환자에게 수면제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위급한 생명을 구하고 마비 상태를 풀어주는 치료법으로 명성을 날렸다. 이러한 방법은 수년 후 공인 치료법이 되고 논문과 학문으로 정립되었으며 ‘Barbiturate Coma Therapy’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하루에 '더블 홀인원' 기적을 만들다 골프의 에너지를 진료의 시너지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흉부외과 원용순 교수의 골프 이야기

5년 연속 PGA투어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던 타이거 우즈. 그리고 이런 타이거 우즈를 2009년 PGA에서 역전승한 양용은. 내로라하는 프로 골퍼들도 선보이지 못한 이색 풍경이 최근 아마추어 골퍼의 라운딩에서 벌어졌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흉부외과 원용순 교수가 18홀 동안 '더블 홀인원'을 기록한 것. 원 교수의 '건강관리'와 '골프' 이야기를 들어봤다.

생애 첫 홀인원에 이어, 하루에 홀인원만 2번 기록

원용순 교수가 '더블 홀인원'을 기록한 장소는 경기도 여주 소피아 그린. 원 교수는 지난 9월 4일 대학 동문 흉부외과 의사 30여 명과 함께 친선 골프 모임 중이었다. 4번홀(파3·140m)에서 8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한 공이 멀리 날았다. 앞 팀에서 '조금 더!', '조금만 더!'를 외치더니 갑자기 '와우~!'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을 때 원 교수는 홀인원을 직감했다. 앞 팀 골퍼들의 말에 따르면 그린에 떨어진 공이 6m 정도를 굴러가 홀에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고 한다. 이로써 원 교수는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하게 됐다.

8번홀(파3·132m)에서 원 교수는 거짓말 같은 기록을 한 번 더 써내려갔다. 이번엔 9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한 공이 벙커를 넘어 쾅 오른쪽 1m 지점에 떨어졌다. 그리고는 도르르 굴러 홀로 들어가 원 교수의 두 번째 '홀인원'이 탄생되었다. 4번 홀에서 라운딩을 한 지 채 한 시간도 흐르지 않았는데 또 다시 진풍경을 연출한 원 교수와 함께 라운딩한 동료들은 이번에는 시끌벅적한 탄성 대신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평생에 볼까 말까한 기록을 가까



이에서 보게 된 골퍼들의 일반 골퍼들은 원 교수를 찾아 악수를 요청하며 축하를 건넸다. 원 교수의 기록 같은 연속 홀인원 기록에 골퍼들 관계자들도 분주해졌다. 갑작스럽게 축하 케이크와 꽃다발을 2개나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로또 1등 당첨보다 더 힘들다는 하루 홀인원 2회의 기록은 당연히 해당 골퍼장 개장 이후 처음 맞는 일이었다.

서 남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연습에 연습을 더한다. 한 라운드 더블 홀인원의 기록은 사실 그가 개발한 독특한 연습 방법에서 비롯됐다. 정확하게 일관적인 샷을 만들기 위해 10분 정도 파3호 티샷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그 후로 그의 샷은 '컴퓨터 샷'으로 불린다고 한다. 정교해진 샷만큼이나 건강도, 일도 좋아졌다. 스트레스가 제대

사람이 평생 살면서 번개 맞을 확률은 800만 분의 1. 번개 맞기보다 힘들다는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 로또 1등 당첨보다 어렵다는 한 라운드 더블 홀인원 확률은 6,700만 분의 1.

...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글·편집부 사진·문화일보·여주 소피아그린 제공



40대 입문한 골프의 세계...

스트레스 날리고, 건강도 챙겨

1984년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20년 넘게 흉부외과 의사로 지내고 있는 원 교수의 삶은 고도의 집중력과 스트레스로 숨 가쁘게 바쁜 날들이 대부분이다. 바쁜 일과로 인해 골프에 관심들 여유가 없었던 원 교수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의 화제가 주로 '골프'에 집중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동료 교수들과 조금은 소원해짐을 느꼈다고 한다. 동료들과의 유대관계와 진료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조금 늦은 40대 중반인 지난 2006년 골프에 입문하게 됐다. 그러나 바쁜 진료와 수술 스케줄 탓에 사실상 주1회 라운드도 여전히 그에겐 힘들다. 특히 왼손잡이인 원 교수에게 오른손잡이 골퍼체는 마냥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 교수는 병원 인근의 드라이빙레인지에



로 플러니 수술실에서의 집중력도 좋아졌고, 진료 방에서 외래 환자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운동으로 지켰으면

"제 건강이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는 게 건강 유지 비결이에요. 건강은 건강할 때, 꾸준히 운동으로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노력도 않고 기대치만 높으면 오히려 좌절이나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골퍼도 몸으로 터득해야 오래 가고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건강했지만 이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결국 손 쓸 수 없을 상태가 되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를 많이 봐 안타까웠다는 원용순 교수는 굳이 골퍼가 아니더라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꼭 지켰으면 한다고 바랐다. **5월**

field + Confidence

병원 24시

24시간 암과의 사투가 벌어지는
부천병원 암병동

암이 '절망의 병'이던 시절이 저물고 있다. 암병동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암을 대하는 의사들의 자신감이 높아졌고, 환자들의 의식과 능동적인 자세도 활기찬 병동 분위기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최신 기술과 적극적인 의료진, 긍정적인 환자들 모두가 보조를 맞춰 새로운 암병동 분위기를 창조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암병동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글_한정현 사진_임운석



50명의 의료진이 환자의 웃음을 지킨다

'우울한 암병동'은 옛말...최신 기술로 높은 완치율 보여



조기 진단 기법의 발전과 수명의 연장은 암 환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암 환자는 늘어나지만 치료 예후와 생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암병동이 우울하다는 이야기는 옛말이 됐다. 환자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각자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하루를 들여다본다.



5:00 이른 아침 5시. 암병동의 하루는 혈액을 채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혈액 암 등 암 환자의 혈액은 현재 상태와 건강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장기 입원환자 등 혈액을 자주 뽑는 환자들에게는 목 아래에 혈관 포트를 삽입해 두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6:30 오전 6:30부터는 주치의(레지던트) 회진 시간. 밤 사이 환자의 상태와 경과를 살피고 이 내용을 취합해 오전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치료 방법을 의논하게 된다.

7:30 매일 오전 7:30, 오늘 컨퍼런스에는 홍대식 병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입원 환자들의 경과와 예후에 대한 발표에 이어 관심은 새로 입원한 45세 남성 환자에게 집중되었다.



간호사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지난 9월에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졌는데 지역병원 심장내과에서는 약간의 빈혈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반복되어 우리 병원에서 피검사를 한 결과 혈액 중 단백질이 많고 알부민과 글로블린의 균형이 깨진 다발성골수종(혈액암)으로 나왔습니다.” 다발성골수종은 파골세포가 뼈를 갉아먹어 골절이 잘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옛날 같으면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에 갑자기 골절이 되면 원인을 모른 채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하게 마련이고, 결국은 원인을 모르고 치료시기도 놓쳐 젊은 나이에 급사했을 병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환자가 입원해서도 회사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카운슬링도 진행했다. 진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병이 완치되어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는 향후 정신과와 함께 카운슬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8:00 오전 8시~9시는 회진(라운딩) 시간이다.

복도에서 만난 한 보호자가 박성규 과장에게 인사를 하며 “아버님이 많이 좋아지셨다”며 고마움을 표한다.

“올해 팔순을 넘기신 데다 4번이나 항암치료를 받으셨는데 경과가 좋습니다. 약이 좋아져 예전이던 포기할만한 분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박 과장의 설명이다. 70대 후반 환자들도 예전과는 달리 영양 상태와 신체 조건이 좋아 치료를 잘 견디고 있다고 한다. 의료보험의 혜택도 좋아져 예를 들어 고가진료에 해당하는 400만원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20여 만원밖에 들지 않는다. 5% 정도만 부담하는 셈이다.

10:00 오전 10시. 3인용 무균실에서 조해진 간호사의 지도로 환자들이 체조를 하고 있다. 병에 대한 처치 못지않게 전신의 건강과 활기찬 분위기도 중요하다. 부천병원의 무균실 병동은 최근 9개로 늘었다.

1:50 오후 1:50. 배식 종료 10분을 앞두고 수간호사와 김지연 전담간호사가 부랴부랴 텅 빈 구내식당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했다. 오늘 메뉴는 만두국.



암병동의 시술을 일리는 아침 회의를 진행한다.

2:00 오후 2시. 조해진 레지던트가 환자의 복수를 제거하고 있다.

부천병원은 지난 2006년 장기이식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조혈모세포의 이식수술이 최근 110례를 넘어서고 있다. 성공률도 70%에 육박하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은 건강한 조혈줄기세포 1~2cc를 말초에 주사하면 골수로 가서 정착한 뒤 세포분화를 하도록 해서 건강을 찾아주는 것이다.

5:00 오후 5시 오후 회진이 끝나면 7시경 하루의 일과를 정리한다. 하지만 3교대로 근무하는 병동 의료진에게 일과의 시작과 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환자들은 병세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만약 열이라도 나면 1~2시간 이내에 바로 처치하지 않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암병동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의사들이 대부분의 주말을 환자들과 함께 보낼 각오로 일하고 있다.

① 무균실 입원환자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체조를 하고 있다.
②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미니 인터뷰

종양혈액내과 박성규 과장

“암 환자의 증가로 맞춤 치료 등 내실 확보 주력”



“최근에는 70세가 되어도 정신과 영양상태가 좋아 치료를 잘 견디고 예후도 좋습니다. 기술도 좋아져 5년 전 같으면 10개월가량 생존하던 폐암 4기도 이제는 2년 넘게 생존합니다. 치료의 목적을 완치보다는 현실 생활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박 과장은 암 병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의 질을 제고하여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과의 협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척추종양만 보는 스테디 모일도 있을 정도로 맞춤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형별 암 추세는 위암은 줄어드는 대신 폐암, 대장·직장암, 유방암, 악성혈액질환은 늘고 있다. 폐암은 금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흡연 인구가 줄지 않기 때문이고, 대장암은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유방암은 지방 섭취의 증가와 여성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 악성혈액질환은 평균 연령의 증가와 함께 환자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암을 예방하려면 위생과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바이러스와 반복적인 염증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과 정기건강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불편하더라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늘어나는 추세이며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대장내시경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 과장의 건강법은 걷기와 달리기, 스트레칭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을 달리는 것이 어느덧 물코스를 3시간20분 만에 뛰는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

전담간호사 김지연씨

“희귀병에 걸린 가족 간호하던 마음 그대로...”



전담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와 환자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연결하고, 이식 전 교육과 입원을 짜는 일 등이 김지연 전담간호사의 역할이다.

“간호사 공부를 하던 중에 면역계 희귀병에 걸린 가족이 있어 간호를 하며 학교를 다녔죠. 그 때 다짐했어요. 간호사가 되면 가족같이 대하겠다.”

동료 간호사들은 김 간호사가 언제나 웃으며 편하게 대한다고 말한다.

“암병동에 배치되어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김 간호사. 아들 딸을 둔 홀린 맘이지만 연애시절에는 남자친구를 불러 피를 뽑게 했다고. “AB형이 필요해 불렀는데 딱딱하게 와서 백혈구 촉진제 맞고 굶은 주사도 맞더라고요. 나중에 말하길 참 아팠는데 멋진 척 하려고 안 아픈 척 했어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 이숙희씨

“공정의 힘으로 혈액암 물리칠 겁니다”



병동의 마당밭이자 웃음꽃을 물고 다니는 이숙희(48)씨. 지난해 말 몸이 피곤해서 개인병원에서 위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했는데 지혈이 안 되어 ‘큰 병원’ 왔더니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된 이 씨는 너무도 밝고 경쾌하고 긍정적이며 혈액암 환자로는 보이지 않았다.

“환자들은 자기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해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기 쉬운데 그걸수록 공정이 마음의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씨는 병실을 다니며 환자들과 수다도 떨고 위로하는 것이 하루 일과다.

“질 때 안 좋은 생각하면 다음날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심했죠. 매일 즐겁게 살자라고요.”

‘마음의 창’을 맑고 환하게 유지하는 법

모두 보는 것이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각막’ 이야기



글 정진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교수

“선생님, 각막에 구멍이 생겨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들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매우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세극등현미경(안과 진찰용 현미경) 전원을 켜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각막을 여러 번 들여다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는 우선 제 눈을 의심하고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환자의 눈을 검사합니다. ‘이상하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잘못 봤나? 아차 이쪽 눈이 아닌데 환자가 잘못 말했겠지’ “OOO님, 왼쪽 눈이 맞으세요? 혹시 오른쪽 눈 아니세요?” 하면서 일부러 환자분 눈에 손을 가져가며 질문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른쪽은 아무 이상도 없고요, 왼쪽 눈 각막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각막이란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런 환자분들이 오셔서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을 6년 동안 다닌 의사들도 가끔은 눈의 각 부위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환자분의 각막은 건강했고, 각막이 아닌 망막에 조그만 구멍이 생겨서 복잡한 수술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레이저 치료를 받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눈 중에서 가장 앞에 그리고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각막입니다. 눈도 그 크기가 작지만 각막은 지름이 1센티미터가 약간 넘고 그 두께도 0.5센티미터가 조금 넘는 아주 조그만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그맣고 얇은

각막을 담당하는 의사가 안과에 따로 있다면 눈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요, 각막은 정말로 눈에서 창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흰자와 검은자가 보이는데 검은자가 바로 각막이 있는 부분입니다. 창문이 투명하듯이 실제로 각막은 투명해서 각막 뒤에 있는 홍채가 비쳐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창문 뒤에 있는 커튼이 비쳐 보여 빨간 창문, 노란 창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의 관문인 창문에 병이 생겨 뿌옇게 돼 버린다면 다른 부분이 온전하더라도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각막은 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같이 각막을 전공한 안과 의사는 각막과 더불어 눈 속에 있는 렌즈가 뿌옇게 변해 버리는 백내장, 우리 눈의 벽을 담당하는 공막, 공막 위에서 눈을 코팅하고 있는 결막과 같이 눈의 앞 부분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식·라섹을 할까, 콘택트 렌즈를 끼까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라식과 라섹입니다. 라식과 라섹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안경을 쓰지 않고도 안경을 쓴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주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싫으신 분들은 콘택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콘택트 렌즈도 눈에 착용하는 부위가 각막 앞이다 보니 주로 각막을 공부한 의사들이 양복을 맞추듯이 눈에

잘 맞는 렌즈를 맞춰 드립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할 수 없는 눈은 특수 제작된 렌즈를 눈 속에 넣어서 시력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눈의 앞쪽인 각막, 결막, 공막에 생기는 질병들은 피부 질환과 유사한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피부가 몸의 최전선에서 외부 물질들과 접촉 중 우리 몸을 보호하듯이 각막 또한 눈의 가장 앞에서 다양한 외부 환경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피부병이 생기듯이 눈에도 각종 균, 바이러스, 진균(곰팡이)들이 침입해서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병과는 다르게 투명한 창(각막)은 염증을 앓고 나면 지자분해제 뿌연 창문처럼 변해 버리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침입한 병원균들을 제거하고 최대한 각막이 투명도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각막 담당 의사들의 특수 임무입니다.

눈물의 위력과 눈에 걸릴 수 있는 눈

다음으로 피부 알려지처럼 각막과 결막에 알려지기가 생기기도 하며 피부가 건조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요즘같이 날씨가 건조한 가을 겨울이 시작되면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눈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평창히 많은데 몸 전체에 생기는 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먹는 약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 다른 안과 질환과 연관되는 경우 등이 있지만 특별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휴대전화·책과 같이 눈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눈앞이 뿌옇게 보이며 눈을 뜨기 싫은 경우도 있으니, 눈물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색도 변하고 거칠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때로는 피부가 늘어지기도 합니다. 눈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흰자가 접이 생길 수도 있고, 흰자가 굳은살이 생긴 것처럼 변하기도 하며 심하면 검은자까지 자라 들어오기도 합니다. 환자가 처져서 눈물이 계속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이런 질환들은 레이저나 간단한 수술로 비교적 쉽게 원래 모양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눈도 눈에 걸릴까요? 흔하지는 않지만 피부에도 암이 생기듯


이 눈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중 눈 앞쪽에 생기는 대표적인 암이 몇 가지 있는데 몸의 다른 부위에 생기는 암처럼 암이 퍼져서(전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암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서 생겨서 몸의 다른 부위로 퍼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몸에 생긴 암이 눈으로 퍼지는 경우는 조금 더 있으니 눈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눈에서 이식이 가능한 부위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식에 관한 것입니다. 눈에서 이식 가능한 부위는 각막, 공막, 결막이 있습니다. 공막은 집을 짓는 벽돌과 같이 눈의 모양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여러 가지 이유로 벽이 허물어지면 다른 사람의 공막을 이식해서 눈이 동그란 공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결막은 자신의 눈에 있는 것을 일부 떼어내어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대용물로 양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막과 양막은 약품 처리 후 보관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어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즉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각막인데 각막은 돌아가신 분이 기증을 하면 수일 이내에 이식 수술을 마쳐야 하고 기증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의 창문인 각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뿌

옇게 변해 버리거나(각막 혼탁), 알아지지거나, 이상한 모양으로 변하는 경우 새로운 깨끗한 창문을 이식해서 빛이 눈 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각막 이식의 목적입니다. 오래 전 TV에서 <눈을 펴요>라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고 얼마 전 김수환 추기경께서 사후 각막 기증을 하셔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명동성당 앞에는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추모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남기신 것은 묵주 1개와 안구 2개뿐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못 드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작은 눈 그중에서도 조그만 각막에 생각보다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막 의사를 만나시면 대부분 문제없이 치료를 받으시고 깨끗한 창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몸도 마음도 그리고 각막도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이젠 소리가 들려요”

소리를 되찾아 주는 행복한 수술, '인공와우이식'



글. 이치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소리를 듣고,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되는 아주 복잡한 기관이다.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도로 이루어진다. 외이도는 귓구멍의 입구에서 고막까지의 관으로 S자형이며, 바깥쪽 1/3 연골부위 피부에는 작은 털들이 나있다. 피부 속에는 땀샘이 변화한 조직 이구선이 있어 지방 및 황갈색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귓속 피부를 보호해주는 귀지의 원료다.

중이는 고막 안쪽의 공간, 고실, 이관, 유양봉소, 고막, 이소골,

이내근으로 구성된다. 이소골은 고막의 진동을 내이의 달팽이관까지 전달하며, 이관은 중이강에서 비인강까지 연결된 통로로 평상시에는 닫혀있으나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열려 귓속 기압의 평형을 유지한다. 이내근은 강한 소리 자극에는 반사적으로 수축하여 내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내이는 달팽이관, 전정, 반고리관, 내이도로 이루어져 있다. 달팽이관에는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인 'Corti'가 있어 그곳의 털세포가 소리의 물리적 진동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준다. 전정은 중력과 직선운동에 대한 머리의 위치를 감지하고,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운동을 인지한다. 내이도는 안면신경, 청신경, 전정신경이 뇌로 연결되는 통로다.

귓바퀴에 의해서 모아진 소리는 외이도를 통과해서 고막을 진동시키고, 고막이 진동하면 이소골이 움직이고, 이것이 달팽이관 속의 림프액을 움직인다. 이를 감지한 Corti의 털세포가 전류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청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된다. 이 복잡한 과정은 약 1/500초의 시간이 걸릴 뿐이다.

선천성 난청, 빠른 인공와우이식 필요

고도의 정확성을 요하는 고난도 수술인 인공와우이식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와우(달팽이관)의 기능이 소실돼 양쪽 청력을 잃었거나 고도난청인 사람의 청력을 회복시키는 재할 수술이다.



생후 1~2년은 소리를 듣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다. 대뇌에서 소리를 비롯한 여러 외부 자극에 대한 정리정돈이 일어나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이 시기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듣지 못하면 향후 외부 소리 자극에 정상적인 반응이 어렵다.

선천성 난청은 1,000명 중 1명으로 다른 선천성 질환보다도 흔하다. 선천성 난청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보청기와 인공와우이식 등 빠른 청각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것은 아이가 정확한 소리를 듣지는 못해도 소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대뇌에 소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앞으로 인공와우이식을 하였을 때, 듣고 말할 수 있는 대뇌의 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인공와우이식은 반드시 보청기를 6개월 이상 착용한 후에 시행한다.

흔히 인공와우이식 후엔 바로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물론 소리가 들리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소리와는 조금 다른 소리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이 소리에 적응하면서 말을 배워나가야 한다.

언어발달 늦을 땐 반드시 청력검사를


병원을 방문해서 청력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좋지만, 가정에서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난청에 대한 충분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딸랑이 등 소리 나는 장난감을 사용해서 아이가 소리에 반응하는지 살펴보면 된다.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늦을 땐 반드시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

태어나면서는 정상 청력이지만 점점 청력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뇌수막염이나 기타 열성 질환 후에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 갑자기 원인 모르게 청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어린 아이들은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관심만이 아이들의 건강한 귀와 청력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도 노인성 난청도 인공와우이식을

노인성 난청을 포함한 후천성 난청도 일단 보청기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고도 난청의 경우엔 보청기가 소용이 없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층에서의 인공와우이식술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수술 후 결과도 좋다. 인공와우이식술을 받는 노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퇴행성 난청이 길어진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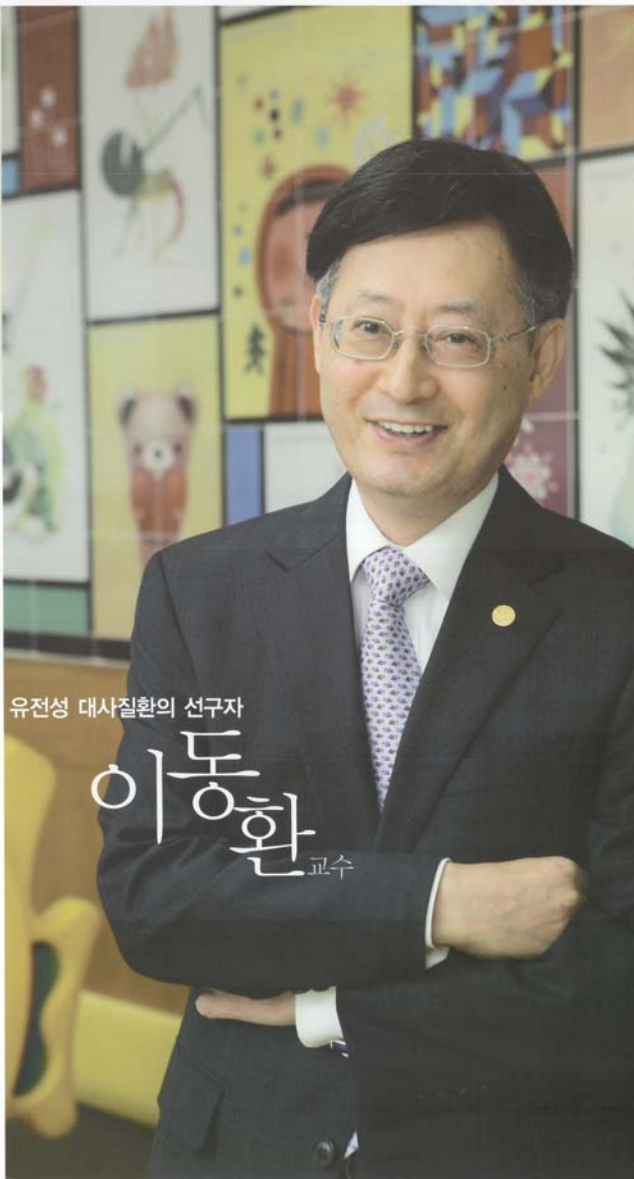
노인 환자들의 인공와우이식도 소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수술 후 언어재활 치료를 통하여 다시 말을 배워가야 한다. 그러나 노인들과 같이 난청이 오기 이전에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언어 재활이 훨씬 더 쉽다. 

인생을 치료하는 이 시대 최고의 명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치료가 있다. 바로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통해 신생아가 정신지체자로 자라는 것을 예방하는 치료가 바로 그 것이다.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이자 선구자가 바로 이동환 교수다. 이 교수는 매년 수백 명의 신생아가 정신지체로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그 신생아들의 인생을 치료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글 전진용 사진 임운석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 동환교수는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주인공이다. 이 교수가 처음 유전성 대사질환에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82년 10월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지원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미 일본에서는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해 정신지체자로 자라는 아이들을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서도 이 검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한



유전성 대사질환의 선구자

이동환
교수



이 교수는 지금도 우리나라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90%와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의 50%를 직접 진료하고 있다. 또한 희귀질환인 갈락토스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등 희귀질환의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전성 대사질환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이 교수는 이 분야를 연구하고 귀국해 국내 처음으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했다.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유전성 대사질환 연구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이 교수는 유전성 대사질환에 대한 검사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이런 이 교수의 노력으로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검사를 통해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모든 신생아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기능저하증과 페닐케톤뇨증의 경우 초기 검사를 통해 100% 정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 교수의 공로를 인정해 정부에서는 지난 1997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여했다. 의료계에서는 흔치 않은 매우 크고 값진 훈장이다.

이 교수는 지금도 우리나라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90%와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의 50%를 직접 진료하고 있다. 또한 희귀질환인 갈락토스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등 희귀질환의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탠덤메스 검사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탠덤메스 검사는 한 두 방울의 혈액으로 43종의 희귀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이 교수는 “몇 년 안으로 탠덤메스 검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귀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앞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런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199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류코다당증 환자의 골수이식을 성공한 이 도 바로 이 교수였다.

지난해에는 그동안의 연구를 집대성해 ‘유전성 대사질환’이라는 우리말 교과서를 국내 처음으로 집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교과서를 보면서 그 동안의 노력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했으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1988년부터는 유전성 대사질환 외에 소아비만과 소아성인병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소아비만의 진단과 치료 지침도 만들었다.

요즘은 또 다른 연구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바로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희귀질환 연구가 그 것이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또한 여러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앞으로도 많은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며 “특히 4명의 손자들을 보면서 그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에 더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전했다.

“그 동안 의사로서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저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교수의 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동환**

의료 발전 위해 ‘향설학술상’ 만들었다

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 뜻 기려 제정
신경학 연구 증진 및 국제 경쟁력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상



생전의 향설 서석조 박사.
서 박사의 뜻을 기려 향설학술상이
제정되었다.

글_조영곤

재단법인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학회설 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향설 서석조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신경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향설학술상’을 제정했다.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지난 10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영남대 박충서 박사에게 ‘향설상’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을 수여(대리 수상: 하정상 영남대 신경과 교수)했다.

또한 ‘향설 젊은 연구자상’은 성균관대 서상원 교수와 인제의대 박경필 교수에게 상패와 상금 각각 500만원씩 수여했다.

‘향설학술상’은 대한신경과학회 창립 및 발전에 기여한 1명에게 ‘향설상’(상금 2천만원)을 수여하고 SCI 등재 우수 논문을 발표하여 신경학 발전에 공헌한 1명과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으로서 시상연도 말에 만 40세에 달하지 않은 1명에게 ‘향설 젊은 연구자상’(상금 각500만원)을 매년 2명에게 수여하게 된다.

1회 ‘향설상’을 수여한 박충서 박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신경과 과장,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영남대 신경과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 박사는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발성경화증 등 국내 주요 신경질환 등에 대한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국내 신경질환의 체계적 연구 및 치료를 가능케 했다. 아울러 신경과학회 창립, 신경과 독립에 매진해 1982년 신경과 독립을 이끌었다. 또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대한신경과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신경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향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향설서석조 박사기념사업회측의 설명이다.


박충서 박사는 향설상 수상과 관련, “우수 의료 인재 양성과 신경과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온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의 ‘향설상’ 수상자로 선정돼



향설상을 대리수상한 하정상 영남대 교수(가운데)에게 대한신경과학회 학회장이 시상하고 있다. 맨 왼쪽이 수상자 박충서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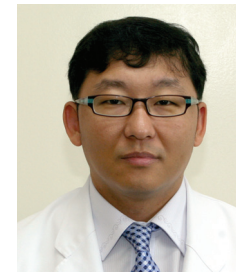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의 뜻을 기려, 후학 양성과 신경과 발전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향설상을 후원하는 재단법인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는 서석조 박사의 의료인으로서의 참모습과 교육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 설립했다. 장 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념사업회는 2001년 7월부터 매년 형편이 어려운 의과대학 및 일반 대학생을 선정해 15~16명에게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향설 젊은 연구자상’을 제정해 신경과 전문의들의 연구를 돕고 있다.

향설 서석조 박사는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로 개원한 순천향병원과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의 설립자다. 우리나라의 신경내과를 개척하고 체계화해 하나의 독립된 진료과목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나간 작은 뇌졸중, 가볍게 보지 마라

위험하다고 미리 보내는 ‘전구 증상’…좀 더 철저한 검사와 예방 요구돼



글_오형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

항상 날씨가 추워지면 뇌졸중(중풍) 환자가 급증한다. 겨울엔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다. 요즘에는 30, 40대 젊은 뇌졸중 환자도 많다. 뇌졸중이란 머리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으로 주증상은 의식 변화, 반신마비, 언어·중심·시야 이상, 두통, 어지럼증 등이다.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예방법 등을 짚어보았다.



뇌졸중 증상이 있다가 거의 완벽하게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일과성 허혈성 발작으로 완전히 치료됐다고 오인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찾아올 더 큰 신경학적 결손에 앞서 나타난 전구 증상이며, 보다 철저한 검사와 예방이 요구된다. 일과성 허혈성 발작은 대표적인 뇌졸중 위험 인자며, 그 자체가 뇌졸중이다. 열공성 뇌경색(뇌의 미세한 혈관이 막히는 경우) 역시 초기에 나타난 신경학적 장애에서 점차 회복돼 뇌졸중이 잘 치료돼 회복됐다고 잘 못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후유 장애의 부분 회복에 불과하며, 손상 부위가 뇌의 기능상 비교적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이다.

철저한 고혈압 관리, 뇌졸중 예방의 지름길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고혈압 치료제는 복용을 시작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 약물 복용에 소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뇌졸중 예방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조기에 약물을 통해 혈압을 잘 조절해야 뇌졸중과 기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혈전용해술’. 그러나 대부분이 그저 막힌 혈관을 뚫어 준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치료시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시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후유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발병되면 3시간 내에 전문병원으로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 세포에 3~5분의 혈류가 차단되는 것만으로도 뇌세포는 사망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미 과사된 세포에는 혈류를 보내도 그 기능은 회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혈류 손상이란 기전에 의해 부분 생존하고 있는 세포까지 이차 염증 반응 등으로 손상될 수도 있다.

‘혈관 청소하는 주사’ ‘치매 예방 주사’ ‘뇌졸중 예방 주사’ 등에 관해 묻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있다. 관련 연구 자료와 동물 실험들에 대한 보고들은 있지만 현재 의학적으로 공식 인정된 약물이나 치료법은 없다.

청심환 먹고, 손가락 따면…“NO!”

무엇보다도 뇌졸중 발생 초기에 올바른 처치가 중요하다. 의식이 나쁜 환자에게 찬물, 식초, 한방 약재 등을 먹이곤 하는데, 흡인성 폐렴 혹은 질식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구강 내 이물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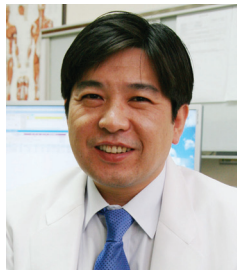
또 부분 마비, 어지럼증, 오심, 구토, 현기증만 있어도 손가락과 발가락을 소독되지 않은 바늘이나 면도날로 피부를 손상시키고, 피를 짜내는 경우도 많다. 이것 역시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행동이며, 당뇨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이차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지속적인 약물 복용, 철저한 혈압 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개인별 위험인자 조절이 뇌졸중의 발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순천향의료원 신하 3개 병원(천안, 서울, 부천병원)은 지난 10월 24일자 중앙일보에 ‘우리지역 최우수 급성 뇌졸중 치료병원’으로 각각 소개되었다.

추워진 날씨, 관절염 주의!

겨울철에 근육과 혈관 수축되어 통증 유발...관절 건강은 운동으로 지켜야

겨울은 관절염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계절이다.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근육이 수축되면 유연성이 떨어져 관절이 굳어지고 혈액 순환이 저하되어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관절염이 심한 환자가 추운 새벽 극심한 관절 통증을 호소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라 할 수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관절 통증도 심해지는 요즘, 건강한 관절 관리법을 알아보자.



글_ 지정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정형외과 교수

퇴행성 관절염, 꾸준한 운동으로 진행 늦출 수 있어

관절은 관절 연골(물렁뼈)과 주위의 뼈, 관절을 싸고 있는 막으로 구성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관절 연골에서 시작된다. 연골을 만들어 내는 연골 세포가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고 연골의 탄력성이 없어져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골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병이 점점 진행되면 관절 막으로 둘러싸인 관절강 안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 염증이 반복된다. 일반적으로 체중



을 지탱하는 부위인 무릎에 쉽게 발생하며 무릎이 붓고 움직일 때 마찰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행되면 O자, X자 모양의 관절의 변형과 더불어 통증이 발생한다.

관절염은 한번 진행되면 치료하지 않는 이상 저절로 낫지 않는다.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만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관절내시경이나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주는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관절 건강에 신경 써야 오랫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인체의 근육과 인대는 수축하게 되며 근육의 수축은 관절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하지만 춥다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의 통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겨울철에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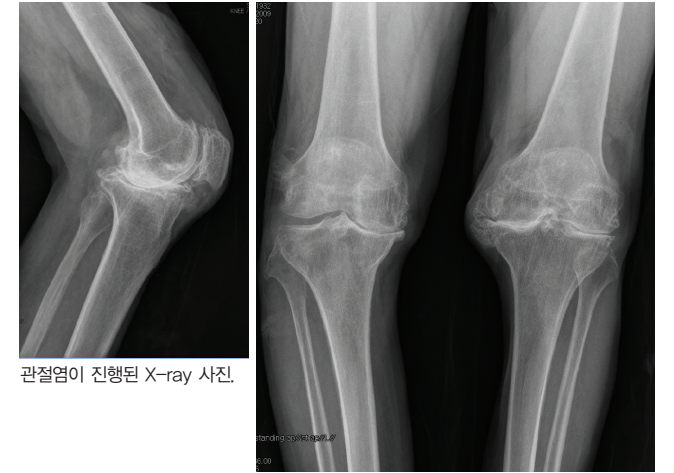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염 예방

겨울철 관절을 뻣뻣한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다 보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약한 곳은 빠듯할 수 있다. 관절이 다치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상체만을 일으켜 무릎 주위 근육을 손으로 마사지해 풀어준다. 10분가량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관절까지 따뜻해지게 된다.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다. 한쪽 다리를 45도까지 천천히 들어 올린 후 5~10초 고정했다가 내리는 운동을 3~5회 반복하면 좋다. 잠자리 들기 전에 소염제를 바르면 기상할 때쯤 효과가 나타나 효율적이며, 잠자리에 누울 때부터 무릎에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한 번에 윗몸까지 일으키지 말고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몸을 돌린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키는 것이 좋다.

관절염 환자, 운동에도 방법과 요령이 있다

관절염 환자의 운동 방법에는 중요한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무릎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 둘째는 허벅지 및 무릎 주위 근육 강화 운동, 마지막이 유산소 운동이다.

모든 운동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니 관절염이 의심되는 환자나 관절 통증이 있는 환자라면 속도 변화가 많고 관절 부위 충격이 큰 운동인 축구, 배구, 농구, 스쿼시, 야구, 달리기 등은 피한다. 그 대신 연골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산소



관절염이 진행된 X-ray 사진


운동인 걷기, 수영, 수중에서 걷는 운동, 골프, 볼룸댄스, 고정식 자전거 운동 등이 추천된다.

운동 강도와 시간은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질병의 경과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하도록 한다. 아프다고 너무 오래 운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 기능이 더 저하될 수 있으니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움직인다. 통증 정도가 심한 관절부터 짧고 서서히 운동하며 관절에 부담이 되면 중지하도록 한다. 특히 겨울철 이른 새벽이나 아침운동은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관절이 경직될 수 있어 쉽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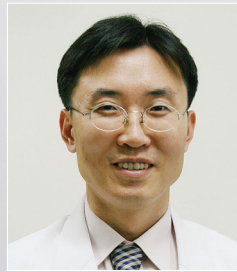
운동 빈도는 1주에 3~4일 정도로서, 1일 여러 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통증이 없는 경우는 같은 운동을 10회 정도 반복하며 통증이 있는 경우는 3회 정도로 한다.

또한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찜질이나 반신욕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굳어진 관절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하자.

장기적인 활동 장애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적 질환으로서의 관절염은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활동 장애의 가장 큰 원인적 질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절염은 장기 활동 장애의 주요 원인적 질환(중풍에 이어 2위)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통계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60%가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평균 수명 9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연말 음주로 인한 간질환 예방 캠페인 “자신의 상태를 알고, 부어라, 마셔라”



글 _ 김완중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2700년 전 히포크라테스는 “술은 음료로서 가장 가치가 있고, 약으로서 가장 맛이 있으며, 음식 중에서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의학에서도 술은 적당히 마시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일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명약이지만, 과음은 간, 췌장, 심장 등을 손상시켜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 및 간암과 알코올 의존 또는 중독증에 이르게 한다.

하루 종일 업무와 스트레스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일과 후 좋은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피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며,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송년회 약속이 달력을 메우게 된다. 또한 회식에서 음주는 업무의 연장이자 대인관계의 지표로 여겨져서 술을 잘 마셔야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인정받으므로 술이 약한 사람도 연말에는 능력이상 마시고 다음날 주독으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술에 대해 잘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연말 술자리를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과음에 따른 증상은 단기적으로 쇠약감, 구역, 두통, 속쓰림 등이 있다. 장기 음주 시에는 누적 섭취량에 따라서 위상복통, 부종, 피부의 거미상 혈관, 복수와 황달 등이 나타나게 되며 영양결핍과

장기 음주 시에는 누적 섭취량에 따라서 위상복통, 부종, 피부의 거미상 혈관, 복수와 황달 등이 나타나게 되며 영양결핍과 말초신경병변에 의한 이상감각, 치매나 중추신경 장애 및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말초신경병변에 의한 이상감각, 치매나 중추신경 장애 및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술로 인한 간질환은 바이러스성 간질환과 달리 술을 끊음으로써 회복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금주 1~4주 후 간 내 지방 침착이 소실된다.

음주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적응하고 즐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회식 자리에서 몸을 상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요령을 몇 가지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을 보호하는 음주법


1)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80g 이하로 줄이면 간 손상도 감소한다.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루에 마시는 알코올의 섭취량이 간 손상을 좌우한다. 즉, 안주의 종류나 양, 술에 취하는 정도,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 등과는 상관없이 술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상습적으로 과음하면 간 손상을 피할 수 없다. 알코올 섭취량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마신 알코올량(gram) = 마신 양(mL) × 알코올 농도(%) × 0.8 (비중) / 100이다. 소주 1병씩 매일 먹는다면 하루 섭취한 알코올량은 350mL × 20% × 0.8 / 100 = 56g이 된다. 한편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적정 음주’ 또는 ‘안전 음주’라고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루 30g (소주 3잔) 이

내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2) 술은 천천히 마시는 게 좋고, 매일 마시기보다 일주일에 2~3일 금주하는 날을 두면 간 회복에 도움이 된다. 술을 마시면 위와 소장에서 즉시 흡수되며, 흡수된 알코올의 2~10%는 신장과 폐로 제거되지만 90% 이상은 간에서 제거된다. 또한 건강인의 간은 1시간에 8g 정도의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으므로 소주 1병 분해에 5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3) 빈 속에 술을 마시면 흡수가 빠르므로 식사 후 또는 고단백 안주와 함께 마시는 것이 좋다.

알코올은 1g당 7kcal의 열량을 내지만 영양소가 전혀 없으므로 장기적 음주는 영양 결핍이 동반된다. 안주는 간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위염을 예방하고 알코올 흡수를 줄이며 단백질, 엽산 등의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 공급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4) 그 외, 여자는 남자에 비해 알코올의 해독 능력이 낮으므로 하루 알코올 섭취량은 남성보다 적어야 한다.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는 음주 시 간경화가 빨리 오므로 술을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만인 경우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이 권장된다. 

MBC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로 5년 만의 방송 컴백입니다. 방송가로 돌아온 느낌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5년 만에 드라마 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5년이나 쉬었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아요. 낯설지 않고 잘 도와줘서 5년이란 세월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드라마 반응이 좋습니다. 신애라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작가님과 강부자 선생님이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줘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윤다훈씨를 비롯한 출연진과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에 임했던 것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좋은 느낌을 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캐스팅 제의를 받았을 때 부진을 겪었던 MBC 일일극 부활에 앞장서야 한다는 각오와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어서 행복해요.

1995년에 결혼에 골인했으니, 올해로 16년차 부부입니다. 연에게 대표적인 잉꼬부부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비결이라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차인표씨와 결혼하겠다고 하셨는데 변함없나요.

네. 다시 태어나도 인표씨를 남편으로 맞고 싶어요. 차인표씨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죠. 우리 부부가 오랜 시간 변함없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 선행 등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지향하고 희망하는 것이 같아 보니, 큰 의견 충돌 없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술하에 정민, 예은, 예진 등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딸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죠. 입양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 전부터 입양할 생각이 있었어요. 1998년 아들 정민이가 태어

신애라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배우!

일 · 사랑 · 선행, '신현모양처'...그녀의 인생 스토리

배우 신애라. 1995년 배우 차인표와 결혼한 후, 연에게 대표 잉꼬부부로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팬들의 사랑에는 특별한이 있다. 한국의 피비 케이츠를 넘어서, 육아 · 내조 · 선행에서 사회에 귀감이 되는 활동이 더해졌다. MBC 일일드라마 <불굴의 며느리>로 화려하게 복귀한 그녀에게 '신현모양처'로서의 삶을 들어봤다. 글 조영근

났죠. 당시 복지원 봉사 중에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예은이죠. 예은이는 심장이 좋지 않아 해외 입양 대상자였어요. 하지만 심장이 아프다고 입양을 포기하는 것은 벅속에 있는 아이를 놓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했어요. 예은이가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공개 입양을 하셨습니다. 두 딸 아이에게 입양을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이 입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친생부, 생모가 아니냐'라는 생각과 비밀스러운 일의 주인공이란 사실은 엄청난 데이지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제 딸에게 '애 너 입양됐대?'라고 물었



을 때 '어 나 입양 됐어 왜?'라고 대답하길 원해요. 그러니 가끔씩은 아이들이 입양에 대한 부담과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아 힘들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예은이가 '나도 엄마가 낳은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공개 입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차인표 신애라씨 부부가 대한적십자사 창립 106주년 기념식(10월 27일)에서 자게발국 어린이 후원회 공로를 인정받아 '적십자 박애장 은장'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후원 어린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5년 12월 필리핀의 한 어린이를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생활이 어려운 전 세계 어린이 49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차인표씨와 항상 어려운 이웃,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명 두 명, 진심을 다하던 것이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선행으로 비쳐져 부담스러워요. 저희 부부 역시 아이들을 통해 사랑을, 또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있어요. 희망을 입었던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해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학업 등 행여나 할 것이 많죠. 신애라씨 부부의 교육법이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예의와 자율을 강조해요. 큰 아들 정민이가 올해 열세 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범절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존댓말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인지 늘 공손하고 정확하게 존댓말을 해 어른들이 많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생활을 습관화시켰어요. 주변 지인들로부터 아이 옷을 물려받아 입히는 등 아이들이 겸손한 생활을 어려서부터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아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 조그마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시키고 싶어요.

얼마 전 큰 수순(자궁적출수술)을 마쳤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사보 애독자인 환우 여러분에게도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 참 좋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드라마 촬영 등 전혀 문제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질병을 이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순천향대학병원 사보를 애독하시는 독자환우, 의료 관계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서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배우 신애라 역시 독자 여러분에게 좀 더 건강한 웃음 선사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머니가 해주시던 추억 속의 닭볶음탕



글_ 황인철 구미병원 산부인과 교수

화려한 가을의 단풍을 뒤로하고 이제는 쓸쓸함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계절의 화려함 뒤에는 항상 하전함과 쓸쓸함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좋은 날씨에 여행은 좀 다녀오셨나요? 여행 뒤에는 항상 먹거리가 있죠? 최근에는 인터넷과 방송의 여행으로 맛집의 정보가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멋진 비주얼로 소개되는 맛집의 음식은 보기만 해도 늘 군침을 흘리고 저녁 시간에 볼 때면 눈을 원망할 때가 많죠.

수십 년간 비밀스러운 양념으로 맛깔난 음식을 만들어 내는 맛집... 볼 때



마다 늘 메모했다가 여행 때 꼭 한번 가리라 다짐하는 맛집... 그런 맛집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닭볶음탕을 하는 곳인데 들어서는 입구부터 사람이 인산인해고 음식점 밖에는 온통 방송에 관한 사진이 붙어 있더군요. 방문했던 연예인의 사진과 사진은 보너스!!! 다른 음식점보다는 조금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몇 달 동안 기다리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기다리는 것은 그리 지루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음식이 나왔을 때는 제 기대와는 달리 맛은 '글썄요'였습니다.



일단 너무 맵습니다. 맵지 않으면 너무 달고요, 너무 맵고 달기 때문에 닭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이 먹는 밥도 필요하고 반찬, 심지어는 음료수까지도 동원되어야 되네요. 그러다 보니 닭의 맛은 신으로 올라간 것 같은 허무함이 남습니다. 과거 어머니가 해주시던 닭볶음탕을 기억하시나요? 별다른 양념이 없지만 기본 나쁘지 않게 맵고, 고기는 조금 질기지만 먹는 감칠맛은 계속 닭을 찾는 짓가락질을 하게 되고, 밥 한 그릇 안 비비고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닭볶음탕이요,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따뜻한 밥에 감자탕 같이 으깨어 비벼 먹던 그 닭볶음탕.

성인이 되어서는 소주 한 잔 꼭 곁쳐야만 될 것 같은 그 볶음탕. 그날 맛집에서 먹은 닭볶음탕은 그런 닭볶음탕은 아니었네요. 아무리 맛집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손맛이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오늘은 나름 어머니가 해주시던 옛 맛의 닭볶음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계량 스푼 하나 없이 숟가락 하나로 툭툭 넣어보지만 식탁에 음식을 내놓을 때면 무슨 마술이 들어갔는지 그 맛이 대단하죠? 커다란 양념의 비법이 있을 것 같지만 조선간장과 소금, 고춧가루가 다였던 그 시절에는 아무래도 어머니의 손맛이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 옛날 그 맛은 흥내내기에는 힘들지만 제 식대로 만든 레시피니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맛집의 여행도 좋지만 때로는 집에서 먹는 어머니의 손맛이 바로 맛집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닭볶음탕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recipe

재료 닭볶음탕 두 마리, 감자 4개, 고춧가루 5숟가락, 5숟가락, 조선간장 3숟가락, 마늘 2숟가락, 참기름과 들기름 한 숟가락, 대파

1 닭은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어 준비한다.

감자를 싫어하시는 분은 벗기셔서 손질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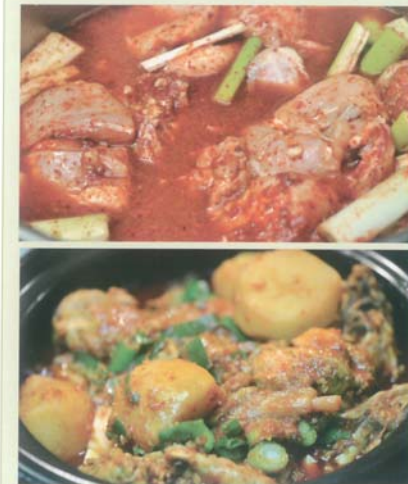
2 독배기에 준비한 닭을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어준다.

그리고 조선간장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용글하게 끓여준다.

3 한소끔 끓으면 조금 불을 줄이고 약불로 끓이다가 준비한 감자를 넣어준다.

4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들기름, 대파를 넣고 마무리를 합니다.

대단한 레시피는 아니지만 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오랜만에 추억의 여행을 떠나서 어머니의 손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동안 우리의 입맛은 너무 맵고 단것에 익숙해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그런 소박한 닭볶음탕인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행복한 가을 추억 만드세요~



아파트 주변의 가로수들이 색동옷으로 갈아입는가 했더니, 어느새 낙엽비로 변해 우수수 떨어진다. 새롭게 깔린 운치 있는 낙엽 양탄자를 밟고 지나가다보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사람의 마음이 참 변덕스럽다. 장마철 건기는 지긋지긋한 '비'가 걱정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가을 걷기 코스는 너무 좋은 날씨 때문에 각장이다. 어느 곳을 가도 구름떼처럼 인파가 물러들 생각을 하니 길의 느낌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 것이다. 가능한 개장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가평에 위치한 '아침고요수목원'으로 향했다.

글·사진, 김진국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가을 정취에 취하다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가평으로 가는 길, 벌써부터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긴다. 삭막한 고속도로 방울벽에 기어오른 담쟁이 넝쿨들이 붉게 물들면서 한 폭의 수채화가 되었고, 도심을 벗어나자 경춘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보이는 산들이 아름다운 풍경화가 되었다. 수목원 가는 길은 7~8년 전 방문했을 때보다는 많이 개발된 모습이었으나, 마지막에는 한창 공사 중인 비포장도로를 통과해야 했다. 정시에 도착해 조용한 수목원을 만끽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같은 생각을 한 부지런한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고요한 수목원에 활기를 더해 주고 있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알린다...

화귀 아생화 5,000종의 아름다운 정원

'아침고요수목원'은 한국 정원의 정의와 모범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세운 부부가 설립했다고 한다. 수목원 안에는 화귀한 아생화 총 5,000여 가지 식물들 20여 개의 아름다운 정원 안에 가꾸어 놓았다. 수목원의 분위기가 마치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연상케 한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품내는 서화연 연못.



수목원으로 들어서면서 한 곳도 놓치지 않고 모두 둘러보리라 마음먹은 우리는 지도를 보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정겨운 초가집이 빨갛게 예쁜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고향집 정원을 지나 푸르름을 자랑하는 침엽수 정원으로 향했다. 개울을 따라 내려가 보니 작은 폭포와 함께 풍경이 아름다워 선녀가 목욕하고 올라갔다는 선녀탕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은 선녀 대신 떨어진 나뭇잎들이 선녀탕에서 유유자적 한가로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우아하고 세련된 가을 국화를 만끽하다

하늘정원 뒤로 멀리 하얀 침엽의 숲 속에 작은 교회가 보인다. 아침고요산책길로 이어진 백련한 것나무 사이의 오솔길에서 삼림욕을 즐기니 안식과 평화로움이 느껴진다. 흙길을 따라 걷다보니 한국정원으로 이어진다. 한국정원에는 구절초·쑥부쟁이·개미취로 분류되는 들국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제아무리 붉이 꽃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가을 국화의 우아함과 세련됨은 따라올 수 없을 것 같다. 잠시 휴식 삼아 전통찻집에서 산수유차와 산머루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며 여유도 즐겨본다. 찻집 앞의 서화연 연못은 정자와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선보이고 있었다. 봄에는 새하얀 벚꽃으로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다고 하니 내년 봄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입구 쪽에 다다르니 축축 늘어지는 나무들로 만들어진 농수정원이 나왔다. 수양단풍나무의 제각각 조금씩 다른 단풍색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다. 분재정원의 화분 속에는 또 다른 작지만 색다른 세계가 녹아 있었고, 무궁화동산의 계단으로는 단풍 폭포가 흐르고 있었다. 이처럼 아침고요수목원 20여 곳의 정원은 각각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곳저곳 정원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감상하다보니 어느덧 3시간이 흘러 있었다. **5.4**

TIP 날씨가 좋은 휴일에는 교통 혼잡을 피해 가능한 개장 시간인 8시 30분에 맞춰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전철이나 버스로 청평까지 가서 청평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막국수와 달걀밥 맛집에서 식사를 한다면 가을 여행의 묘미를 배가시켜 줄 수 있다.

10월 26일 오후 2시경 박원순 후보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투표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자칫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됐다. 박 후보 캠프측은 오후 3시 50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 지역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 또 방송인 김재중 등 유명 연예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일명 '투표 인증샷'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이 같은 선거 문화는 2, 30대는 물론이고, 중장년층에게도 어필,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에 일조했다는 평이다. 일본 NHK 방송은 한국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내년 대선을 분석하는 보도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스마트폰 인증샷 세례가 집중됐다고 선거문화의 새로운 탄생을 예기했다.

한 볼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가능하게 한 기적과 같

은 '내 맘대로 베스트 15'를 올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순위를 살펴보면 상당한 분석력(?)을 자랑한다.

1위 투표에 참여한 서울시민(^^), 2위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3위 이희호 여사, 4위 나는 꼼수다 등이 랭크됐다. 또 14위에 트위터터를 포함한 소셜네트워크가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 2천만시대...스마트폰학과도 생겨나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 3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2천만명을 돌파했다. 인구의 4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소인의 PC시대'가 열리면서 검색, Banking,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스마트폰의 스마트한 시대는 유선인터넷의 핵심 서비스였던 검색이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오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유선 검색 대비 모바일 검색

2천만명 시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숨은 공신

중장년층도 스마트폰 열풍...트위터, 인증샷 놀이 등 인기

스마트폰 사용자 인구가 지난 10월 28일 기준으로 2천만명을 돌파했다. 스마트폰 시대는 소셜네트워크로 대표되는 트위터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야권통합후보의 당선 숨은 공신 가운데 하나가 트위터, 인증샷 놀이 등이다. 이는 스마트폰의 부산물, 당신은 스마트폰을 아는가!

글. 한정현



트래픽이 35%대까지 올라왔다. 은행의 인터넷뱅킹 업무도 모바일뱅킹 점유율이 18.4%다. 대다수 대기업도 스마트 시대 대열에 합류했다. 스마트폰용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든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결재, 메일 등을 쓸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IT기기가 사람 속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MP3, 카메라, 또 네비게이션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길안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대박 앱들이 앱 경제를 싹피우고 있으며 기업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홍보 전략을 높여가고 있다.

스마트폰 인기가 거세지면서 일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학점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관련 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스마트폰 개발 및 관련 산업 종사자 양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스마트폰 없는 자, 소통을 논하지 말라!

스마트폰 하면 연상되는 것이 트위터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면 소통을 논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른다.

140자 이내 단문의 세상 트위터. 트위터는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을 팔로우해 등록해 실시간으로 정보나 생각, 취재 등을 공유한다.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어 관심 있는 유명 인사를 등록해 놓고, 그들의 동정을 파악하거나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경제인 가운데는 박원순 두산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유명하다. 이

들은 트위터 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고객의 불만 등을 체크하며 친근감을 선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인터넷상에 '박원순 어록'이 생길 정도다. 이 밖에도 팔로어가 70만명이 넘는 소셜가 이외수, 방송인 김재중, 시골의사 박경철 등도 트위터의 인기 스타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은 생활의 유용함에서도 인기가. 정보기를 비롯한 요리비법부터, 맛집 찾기, 여행지 안내, 각종 뉴스 검색, 영화 감상 등 정보 소통 측면에서 안 되는 게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 바이어들의 실용은 극에 달한다.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한 50대 한 중년 남성은 "동창 모임에 참석하면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 이용자다. 신약회, 조기축구회도 마찬가지"라며 "어플리케이션이 대화 주제가 될 정도이니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40, 50대 주부들의 스마트폰 활용도도 뛰어나다. 정보기 도우미는 물론 주말 가족여행 중 교통상황까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서 목소리 나는 살림꾼으로 변신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통해 최신 음악과 동영상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평소 손꼽아 기다리던 텔레비전 드라마와도 거리를 두게 됐다.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중장년층의 노력은 눈물겹다. 이는 방통위의 스마트폰 이용자 실태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실시한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에서 40~59세 비중은 1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연말엔 36%로 급증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 스마트폰 사용자는 지난해 상반기 7만7천 명에서 연말 27만3천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한 시대를 대표하는 스마트폰, 대세는 대세인 모양이다. 3월

모터사이클의 황제 '할리데이비슨'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모험정신과 열정을 달린다

글 _ 이창우




언젠가부터 길거리에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과거 일부 마니아층에게만 사랑받았던 모터사이클이 이제는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다. 젊은 CEO들 중 일부도 자동차만큼이나 오토바이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 그중 으뜸은 당연히 할리데이비슨이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2011년 9월 한 달간 총 117대를 판매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1999년 창사 이래 최대 월 판매 실적으로,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할리데이비슨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늘린 결과다. 할리데이비슨을 타는 사람들은 "할리데이비슨은 모터사이클 브랜드의 리더로서 단순한 수차보다는 모터사이클을 즐길 수 있는 상숙한 문화에 매료된다"라고 자부심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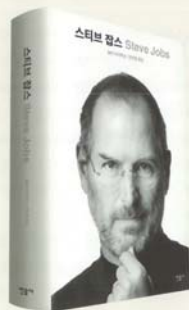
최대 배기량 1802cc의 육중한 몸에서 나오는 엔진 소리에 사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할리데이비슨은 초창기 브이 트윈(V-Twin) 엔진부터 특유의 심장 박동처럼 터지는 공랭식 엔진 소리가 매력이다.

실제로 할리데이비슨은 독특한 문화 그 자체다. 할리데이비슨 매장에서는

의류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케이스부터 자동차 핸들, 아가용 신발까지 판다. 130개국 1420개 지점에 속해 있는 100만명이 넘는 'H.O.G.'는 할리데이비슨의 디자인(Look)과 엔진 소리(Sound), 독특한 진동감(Feel)을 할리데이비슨 최고의 매력으로 꼽으며 생활 속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할리데이비슨과 함께한다. 여기에 '이 세상에 똑같은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은 한 대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갖춰진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바탕으로 핸들부터 시트까지 모든 부분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으니 그 매력이 어느 정도로 깊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중소기업 Y 대표는 20년 가까이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있다. 그는 "평생을 사는 것보다 한 순간 빠르게 달리는 것이 더 소중한 때가 있다"며 모터사이클을 타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업을 하며 쌓인 스트레스도 푼다고 말한다. 모터사이클이 위험하다는 편견이 많은데, 보호장비 등을 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그 모험정신과 열정을 제대로 체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늦가을, 빨갛게 단풍이 물든 거리를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달리는 자신을 상상해보자. 





스티브 잡스가 인정한 유일한 공식 전기 ‘혁신의 아이콘’, 그의 마지막 육성을 만난다

2011년 10월 5일,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우리 곁을 떠났다. 평생을 신비주의로 일관하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유일한 공식 전기 〈스티브 잡스〉를 써 달라고 요청했다. 〈타임〉 전 편집장인 월터 아이작슨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완성되었다. 그의 전 생애와 혁신의 핵심 원천이 최초로 밝혀진다.

정리, 편집부



잡스의 생애는 그동안 많은 전기 작가들이 탐내는 소재였고,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그의 허락 없이 그의 인생 역정을 조명한 서적을 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류의 전기의 나을 때마다 잡스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고, 심지어 해당 출판사의 다른 책들까지도 애플 스토어에서 모두 치워 버리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평소 친분이 있던 아이작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인) 산책을 요청하고 자신의 전기를 써 달라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아이작슨은 2009년부터 2년간 잡스와 함께 여러 시절 집을 방문하거나 함께 산책을 하며 그를 40여 차례 인터뷰했고, 그의 친구, 가족, 동료뿐만 아니라 그에게 반감을 가진 인물이나 경쟁자까지 포함하여 100여 명의 인물들을 인터뷰하였다. 잡스를 둘러싼 모든 것이 집적된 이 전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보낸 잡스의 어린 시절부터 애플의 창업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 생애가 담겨 있다. 스티브 잡스에 관한 모든 서적 중에서 유일하게 그가 자신에 대해 직접 전술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 전기는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작슨이 잡스에게 약속받은 대로, 그조차도 아직 읽지 못한, 그리고 끝내 읽지 못한,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유일한 기록이다.

6개 산업 부문에서 놀라운 혁명을 일으킨 창조적 기업가이자 기술과의 소통 방식을 바꾼 미디어 혁명가, 기술의 대중 친화력을 증진한 기술의 미니멀리스트이자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시킨 디지털 철학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없는 열정에 미친 남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사랑하고 꿈꾸고 열망한 모든 것, 그동안 숨어 있던 모든 이야기가 지금 그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공개된다.

“죽은 후에도 나의 무언가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싶군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어쩌면 약간의 지혜까지 쌓았는데 그 모든 게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요해집니다. 그래서 원가는 살아남는다고, 어쩌면 나의 의식은 영속하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어쩌면 평생을 신비주의로 일관하던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유일한 공식 전기 〈스티브 잡스〉를 써 달라고 요청한 것은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약간의 지혜’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일 것이다. 그 약간의 지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내 열정의 대상은 사람들이 동시에 충만해 위대한 제품을 만드는 영속적인 회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2순위였다. 물론 이윤을 내는 것도 좋았다. 그래야 위대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윤이 아니라 제품이 최고의 동기 부여였다.”

요컨대 “위대한 제품을 만드는 영속적인 회사를 구축”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다. 이 책에 담긴 것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온 위대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그 제품을 만들었던 위대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조직을 이끌었던 위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SCN**

최상의 프랑스 사운드를 선사하는 가장 완벽한 조합 파리 오케스트라 지휘자 파보 예르비 & 백건우 협연



이번 내한 공연하는 파리 오케스트라는 피에르 볼레즈, 올리버 메시앙, 비올라 루토슬라브스키 등과 같은 세계적인 작곡가들의 작품을 수차례 세계 초연, 파리 오케스트라만의 탁월한 현대 음악 해석력을 널리 인정받아 왔다. 협연자로 나서는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기사훈장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은관문화훈장을 모두 수여한 유일한 연주자이다. 프랑스 파리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라벨, 메시앙, 포레 등 프랑스 작곡가의 작품에 특히 뛰어난 연주를 선보인다. 관계자는 “이번 공연에서 파리 오케스트라는 ‘철저히 프랑스적인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시앙, 라벨, 베를리오즈 등의 정통 프랑스 레퍼토리와 러시아인으로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영향을 받았으며, 훗날 프랑스로 망명했던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이 연주된다. 이 중 특히 음반을 통해 이미 명연주를 선보인 바 있는 백건우의 ‘라벨 피아노 협주곡’과 초대 지휘자인 샤를로 뮈쉬와와 녹음이 대표 명반으로 자리 잡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신시내티 심포니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에 이어 지난해 파리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한 ‘신세계의 음악 황제’ 파보 예르비가 지휘를 맡게된다.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 파리에서 바르토크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하면서 처음 만났다. 당시 지휘자는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제언했지만, 백건우는 거꾸로 난곡(難曲)으로 꼽히는 협주곡 2번이 어필됐다고 들었다. 백건우는 “당시 오케스트라에서 같은 곡을 수차례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바꾸는 편이 옳다고 여겼다. 연주자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협주곡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르비는 “너무나 까다로운 곡을 비범하게 해석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음악 감독에 취임하고서도 예르비는 한국 공연의 동반자로 어김없이 백건우를 초대했다.

백건우에게 파리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지난 1999년 이후 4번째가 된다. 다음 달 내한 공연에서 그는 프랑스 작곡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골랐다. 백건우는 “프랑스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작곡가를 국내에 소개한다는 점에 가슴 설렌다”고 했다. 내한 무대에서 그가 고전적 물결을 갖춘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으로 꼽히는 슈만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CN**

프랑스 최고 전통의 악단인 파리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이 2011년 12월 2일과 3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고 있는 파리 오케스트라는 130명에 달하는 4관 편성의 대규모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매년 80회 이상의 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다.

정리, 편집부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건축전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미래 건축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전이 충남 아산시 평생학습관(아산시 용화동 소재) 전시실에서 개최했다. 10월 7일 순천향대학교(총장 손풍삼) 건축학과가 4학년 재학생의 졸업 작품을 비롯해 총 11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순천향 건축전'을 6일부터 8일까지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순천향 건축전'은 지난해까지 순천향대 캠퍼스 내에서 개최했으나, 올해에는 지역 주민은 물론 건축학과를 지망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전시회 자체의 규모를 키워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아산시 평생학습관으로 장소를 옮겼다.



충청 지역 의약 바이오 취업 박람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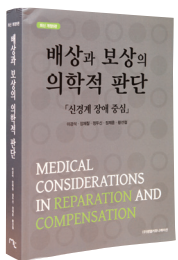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총장 손풍삼) SCH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센터장 이상기)가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2011 잡월드 로드쇼 충청광역경제권 의약 바이오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순천향대와 충남대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기업은행,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며 충청 지역 의약 바이오 분야 고용을 창출하고,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향대와 충남대를 비롯해 충청 지역의 의약 바이오 관련 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 1,500여 명이 참석했고, 50여 개 우수 의약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소가 참여해 채용 부스를 운영하고 구직자 상담 및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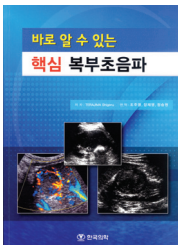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개정 5판 발행 순천향대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은 최근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개정 5판을 발행했다.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은 1992년 초판 발행 후 지금까지 신경계 질환의 장애 평가와 의료 감정의 지침서 역할을 해 왔다. 개정 5판에서는 장애 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제도의 변화, 시대적인 인식을 충실히 반영했다. 두부 외상, 척추와 척수 손상에 대한 치료 기간, 후유증, 향후 치료 등에 대한 소개와 업무상 재해 인정과 질병의 판단, 장애 정도의 판단, 진단서와 손상의 정도, 신경계 장애 평가 개선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간 '바로 알 수 있는 핵심 복부초음파' 응급 진단에 유용한 초음파 영상 아틀라스 지침서

응급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초음파 영상과 간략한 해설을 담은 핸드북 아틀라스 지침서가 나왔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암센터 조주영 정재영 정승원 교수팀이 일본 테라지마 시게루(Terajima Shigeru)의 책 〈바로 알 수 있는 핵심 복부 초음파〉를 번역 출간한 것이다. 간, 담낭, 췌장, 비장 및 소화관 등의 소화기계 질환은 물론 비뇨기계, 산부인과, 복부혈관까지 주요 장기별 질환에 대해 특징적인 초음파 사진과 해설을 담았다. 총 10개 장으로 나뉜 간, 담낭·담관, 췌장, 비장, 신장·부신·요관·방광, 전립선·음낭, 자궁 및 자궁 주변장기, 소화관, 복부혈관, 기타질환, 부록으로 구성했다. 도서출판 한국의학 발행, 총 293페이지, 정가는 5만5천원. 구입문의 도서출판 한국의학 02)709-0138



순천향중앙의료원

의료원 산하 4개 병원 '손 씻기' 릴레이 캠페인 벌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환자와 방문객, 직원들에게 손 위생의 중요성과 올바른 손 위생 방법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산하 4개 병원이 같은 방식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서울병원은 10월 10일부터 11일, 천안병원은 10월 18일부터 19일, 구미병원은 10월 20일부터 21일, 부천병원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각 이틀간 'I love hygiene(♥HH)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게는 '손 씻기가 환자사랑의 시작'임을 강조,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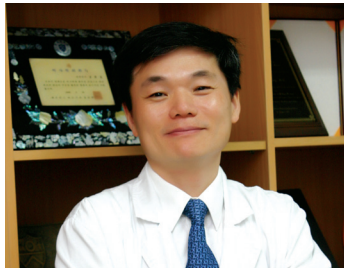
국내 최초 고도비만수술센터 인증 획득 순천향대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

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센터장 김용진)가 국내 최초로 '고도비만수술센터'로 인증을 받았다. 10월 1일자로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컬과 다국적 기업 EES (Ethicon endo surgery)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센터는 향후 외과 전문의와 수술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김용진 교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여건(위절제술 140여 건, 위우회술 및 2차 수술 60여 건) 등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했으며, 평균 약 40kg 정도의 체중 감량 치료를 하고 있다.



줄기세포 이용한 방광 섬유화 및 배뇨 곤란 치료법 연구 순천향대병원 비뇨기와 송윤섭 교수팀

순천향대학교병원 비뇨기와 송윤섭 교수팀이 중앙대학교 의학연구소(이홍준, 김승업)와 함께 최근 연구한 2편의 논문이 세포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Cell Transplantation(IF 6.2)에 게재될 예정이다. 송윤섭 교수의 첫 번째 논문은 '흰쥐 방광 하부폐색에서 자기공명영상으로 추적한 나노입자 부착 인간중간엽줄기세포 이식을 이용한 방광콜라겐 침착 억제'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광 이식으로 방광 하부 폐색으로 발생하는 섬유화 및 배뇨 곤란을 치료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논문은 '흰쥐 방광 하부폐색에서 간성장인자 과발현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광 콜라겐침착 억제 및 기능 회복'으로 줄기세포 유전자 전달을 통해 섬유화를 억제하는 간 성장인자를 유리시켜 방광의 섬유화 및 배뇨 곤란 호전 효과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줄기세포에서 간세포 분화 방법 개선 순천향대병원 외과 최동호 교수, SCI 게재

서울병원 외과 최동호 교수가 사람의 배아줄기세포에서 간세포를 분화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향후 난치성 간질환의 줄기세포 치료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호 교수의 논문(Hepatic Differentiation from Human Embryonic Stem Cells Using Stromal Cells 사람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간세포 분화)은 국제 우수 저널인 Journal of Surgical Research에 게재 예정이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심혈관 중재수술 인증기관 지정

부천병원이 최근 대한심장학회로부터 심혈관 중재수술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심혈관 중재수술 인증은 대한심장학회가 심혈관중재시술 시행 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 하고 중재시술 의료인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심혈관중재시술과 관상동맥 우회수술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이 가능한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중재시술 인증의가 있는지 등이 평가의 기준이다.

개원 10주년 기념 헌혈행사 개최

부천병원이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9월 7일(수), 8일(목) 양일간 '개원 10주년 기념 헌혈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헌혈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환자 두 명의 치료를 위해 쓰였다. 행사 전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교직원 약 200여 명이 자원을 검사를 실시, 헌혈 적합 판정을 받은 130명의 교직원 및 일반인 10명이 헌혈해 총 140명이 헌혈행사에 참여했다.



다문화가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실시

부천병원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을 지난 9월 15일~30일까지 총 16일에 걸쳐 실시했다. 수강생은 총 19명으로 의료관광에 관심이 많은 부천시내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원을 받아 선발됐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됐다. 강사는 실천 경험이 많은 부천병원 국제협력팀 교직원들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국제진료소 교수진들이 맡아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서울병원 동정

최득린 영상의학과 교수, 인도네시아 의료봉사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람퐁 지역(수마트라섬 최남단)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윤홍기 정형외과 교수, 미국수부학회 최우수상 골곡건봉합술 재할 치료 가이드라인 제시 Joseph H. Boyes Award for best overall paper상을 수상했다.

김용진 외과교수, 국제저널 및 국제인명사전 동시 등재 연구논문이 생명의학 연구 분야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출판물 J Laparoendosc Adv Surg Tech A, 2011 Jan-Feb에 등재됐다.

우성일 정신과 교수, '불교적 명상 수행과 뇌과학 연구' 발표 9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제2회 불교와 심리 심포지엄에서 '불교적 명상 수행에 대한 뇌과학의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

부천병원 동정

홍대식 병원장/중앙혈액내과 9.22 지역 민방위 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인정받아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표창장 수상

정준철 교수/외과 2011~2012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차장규 교수/영상의학과 10.28 대한영상의학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한영상의학회 국내 저술상 수상

노종갑 전공의/응급의학과 10.21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조영순 교수의 지도로 최우수학술상 수상

박은수 교수/성형외과 2010.9~2011.9 1년간 미국 스탠포드 대학 및 래디 칠드렌스 병원에서 연수 후 진료 재개
온영훈 교수/안과 9.19~24 캐나다에서 열린 ISCEV학회에서 주제발표

이광우 교수/비뇨기와 9.22~25 타이완에서 열린 PPCS학회에서 주제발표

이준혁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9.22~29 스웨덴에서 열린 ECCO학회에서 주제발표

신영림 교수/소아청소년과 9.26~10.1 영국에서 열린 유럽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제발표

이종대 교수/이비인후과 9.27~10.1 그리스에서 열린 Politzer Society Meeting학회에서 주제발표

원운송·허균 교수/흉부외과 9.29~10.2 타이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혈관학회에서 주제발표

이문성·홍수진 교수/소화기내과 10.1~4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소화기학회에서 주제발표

문중호 교수/소화기내과 10.6~13 미국에서 열린 Gastroenterology·Hepatology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과림동 주민 대상 '개원 10주년 기념' 합동의료봉사 실시

부천병원이 지난 10월 15일(토)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과림동 주민센터에서 제82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덕우 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실시한 이날 의료봉사에는 6개 진료과 의사 7명과 교직원 총 38명, 덕우라이온스클럽 회원 19명, 학생 봉사자 4명 등 총 61명이 의료봉사에 참여했다. 과림동 주민 116명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했으며, 총 진료건수는 221건이었다. 한편, 이날 덕우라이온스클럽은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환자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김태희 교수, 우수학술연구자상 상금 전액 대학에 기부

부천병원 산부인과 김태희 교수가 순천향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011년도 우수 학술연구자상 상금 전액(500만원)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본 상은 학술연구의 활성화와 연구 분위기 조성으로 대내외 연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학문연구 및 학술활동 등 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발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제1회 보직교수 세미나' 개최

부천병원 '제1회 보직교수 세미나'가 지난 10월 28일(금) 오후 4시 김포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우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김부성 순천향 중앙의료원 상임이사, 홍대식 병원장과 병동장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박재성 부원장의 「우리를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주제의 현황 보고와 문중호 과장, 이태경 과장, 김병성 교수의 운영 우수 사례가 각각 발표됐다. 김범태 진료부장은 다학제 시스템 주제발표로 각 과간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혜영 보험심사팀장이 「진료부에 바랍니다」라는 주제 발표로 진료과와 행정부서 간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방사선암치료 명성, '전국 넘어 세계로' 필리핀, 미국 환자까지 방문

천안병원이 올해 1월 16일부터 가동한 방사선암치료기 '노발리스 티엑스(Novalis TX)'가 불과 9개월을 넘긴 10월 31일 치료건수 6000건을 넘었다. 지금까지 병원 노발리스티엑스 암치료센터를 방문한 외지 환자들은 100명 이상. 이들 대부분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 진단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또한 센터에 대한 입소문은 외국까지도 퍼져나가, 벌써 멀리 필리핀과 미국 국적의 환자 3명이 성공적인 치료를 받고 돌아갔고, 간간히 외국으로부터 상담전화도 걸려온다.



외부 강사 초청 '의료분쟁 조정법' 강의

천안병원은 9월 21일 교육관 2층 대강당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의료분쟁 조정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2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강좌는 MBC '종합병원II'의 김정은 역의 실제를 모델인 이경권 의사겸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로부터 배우는 분쟁예방법'이란 주제로 내년 4월 시행되는 '의료분쟁 조정법'을 비롯하여 의료분쟁의 원인 및 방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천사데이' 행사 개최

천안병원 백의의 천사들은 '천사데이(1004Day) 주간'을 맞아 10월 7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천사데이'는 10월 4일, 백의의 천사인 간호사들의 날. 병원 간호부는 매년 천사데이가 들어있는 주에는 하루를 잡아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란 슬로건 아래 무료검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기념행사를 치른다.



천안병원 온실가스 감축 최우수 기관

천안병원이 11월 7일 '온실가스 감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공·상업·서비스 등 비산업 부문 전국 사업장 61곳을 대상으로 벌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조사에서 전국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병원은 철저한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비롯해, 잔반 없애기, 자동센서등 확충, 조명스위치 구획별 설치 및 격등 제어, 대기 전력 절감,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 냉난방기 필터 세척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지난해 대비 6.6%의 온실가스를 감축시켰다. 이문수 병원장은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저탄소 녹색환경운동을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가을 건강강좌 풍성, 7차례 천명 이상 수강

천안병원은 충청지역 주민을 위해 9월과 10월 7차례의 건강강좌를 열었다. 강좌에는 1,0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찾아와 전문교수가 전하는 알찬 건강정보를 얻고 돌아갔다. 9월에는 류마티스내과 나성수 교수와 심장내과 진동규 교수가 '골관절염'과 '성인병과 관상동맥 질환'을 주제로 총 3회 강연을 실시했고, 10월에는 심장내과 조아라 교수가 '고혈압과 합병증', 재활의학과 김수아 교수가 '노인의 관절건강', 내분비내과 전성완 교수가 '갑상선암', 신경과 양광의 교수가 '수면질환' 등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산업안전관련 보건관리자 교육

구미병원 산업의학과는 10월 18일부터 이틀간, 향설교육관에서 지역 기업체 안전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한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능력 함양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산업보건 정책 방향, PAOT(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에 적용시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1회 병원협회장배 축구대회 출전

구미병원(블루스카이)은 10월 16일, 천안축구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병원협회장배 축구대회에 대구·경북 대표로 출전, 체력증진 활동과 전국에서 모인 병원인들과 친목도모 및 우호협력을 다졌다



'암환자 간호'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

'최신 암환자 간호'를 주제로 간호부는 10월 11일부터 3일간 향설교육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최신 암환자 치료동향과 암환자 간호로 간호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인근 구미, 칠곡 지역 병의원 간호사 100여 명이 참가해 총 35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삼성어린이집 협약 체결

구미병원은 10월 7일, 삼성복지재단 구미삼성어린이집과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삼성어린이집 내 아동 및 교직원의 질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와 관련한 자문 및 적절한 치료, 진료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체외순환기 도입, 심장쇼크 환자 효과적 치료

구미병원은 최근, 응급체외순환기를 경북 최초로 도입했다. 심장의 쇼크나 심장기능 상실, 폐기능 이상의 경우 체내 산소 포화도를 유지시켜 주는 응급체외순환기는 심장마비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적용시켜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며 신속하고 체계화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다.

외국인근로자 축제에 의료 지원

2011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가 10월 23일, 구미대학 운동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린 가운데 구미병원은 15명의 의료진이 참가,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간단한 검사로 건강을 살폈다.

천안병원 동정

여승구 교수/방사선종양학과
10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 29차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Abbott 학술상'을 수상했다.

도재원 교수/신경외과
9/1~3 일본에서 열린 ASIA SPINE 2011에서 연제발표

윤석만 교수/신경외과
9/7~10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인터벤션학회에서 연제발표

백병준 교수/이비인후과
9/19~23 일본에서 열린 ISIAN에서 포스터 발표

배상호 교수/외과
9/24~30 호주에서 열린 AHPBA-2011에서 포스터 발표

박계훈 교수/이비인후과
9/28~10/1 그리스에서 열린 28th Politzer Society Meeting에서 포스터 발표

김은석 교수, 민철기 교수/방사선종양학과
9/29~10/1 일본에서 열린 JKMP-AOCMP 2011에서 포스터 발표

이경석 교수/신경외과
10/10~14 이탈리아에서 열린 EANS에 참석
이창호 교수/비뇨기과
10/15~20 독일에서 열린 제 31회 세계비뇨기학회에서 연제 발표

이상미 교수/핵의학과
10/17~21 영국에서 열린 유럽핵의학학회 참석

전민혁 교수/감염내과
10/19~25 미국감염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이종석 교수/피부과
10/20~28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 20회 유럽 피부성병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김영창 교수/소아청소년과
10/25~31 미국소아신경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김한조 교수/중앙혈액내과
10/28~11/2 호주에서 열린 APBMT에서 포스터 발표

퇴직
이용만 교수(이비인후과)

구미병원 동정

우국현 교수/산업의학과 9/14~22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16회 세계산업안전보건학회에 참석,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동향 및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사례(PAOT)' 연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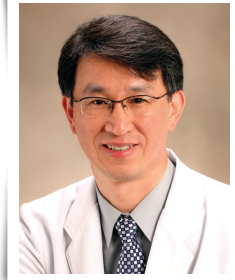
이호형 교수/정형외과 10/31~11/7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척추외과학회에 참석, '허리디스크의 보존적 치료' 연제 발표

정재훈 교수/신경과
11/10~18 모로코에서 열린 WCN 참석

박일철 교수/소아청소년과
10.10~10.16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함께 중국 연변대학북지병원 미숙아치료시설 물품 지원, 현지 의사 교육 및 기술 연수

황인철 교수/산부인과
10.25 구미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으로 위촉, 아동학대 예방 및 성폭력 관련 자문

순천향의대 동문께 고함!



산과 들녘으로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시원한 바람 맑고 푸른 하늘 이 가을에 순천향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성원해주신 동문 선후님께 인사드립니다.

금번 순천향의대동창회 총무를 맡게 된 4회 졸업생 백상업입니다.

저는 육척이 넘는 키에 배 나오고 덩치 큰 개원 외과의사로 순천향 살림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먼저 이루어 놓으신 훌륭한 선배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순천향을 사랑하는 열정과 보은하는 마음으로 동창회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문선후배님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동창회 총무로 주요임무는 동문님들의 동정파악(주소록)과, 회비 및 기금, 동창회 행사 및 사업, 경조사를 차질 없이 꾸려 나아가야 동창회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창회 총무로서, 여러 동문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창회 발전에 머슴처럼 뒤에서 묵묵히 일할 것을 명심하면서 항상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순천향가족이 추구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순천향의대동창회가 발전하려면,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행사나 동창회 사업 및 행사에 꼭 참여하시어 순천향의 위상을 높이고, 동문간의 결속을 더욱 다져 발전하는 동창회를 꾸려 나아가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동문님들의 동정 변화나,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에는 동창회에 연락 주십시오! 함께하는 동창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문님들 하시는 일이 번성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총무 백상업 올림

동창회 주요 활동 안내

본회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회장 이취임식을 비롯해 각종 임원회의, 간담회, 기별 대표 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향후 동창회 행사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천향의대동창회 인수위임원모임(4.22), 부천병원 및 천안병원 순동회모임 인수위회장단 참석(5.3~6. 3), 순천향의대동창회 제 1, 2차 상임임원회(5.28 / 9. 17), 순천향의대 3회, 4회 동문 모임 회장단참석 (6.10 / 7. 10), 순천향의과대학 동창회장 이취임식(6.18), 순천향장학회 임원간담회(7.10), 전체 동창회원에게 동창회사업계획안 편지 발송(7.14~20), 동창회 임원 및 졸업기 대표, 지역 대표, 재경 임원, 의국장에게 사업계획안 발송(8~12), 순천향의대졸업 1~19기 대표 모임(8.21), 순천향의료원보에 동창회 소식 게재(8.26), 순천향의대 소식지 동창회 회장단 게재(9.02), 동창회와 대학발전기금위원회 간담회(9.07), 순천향 의대축제(의향제) 회장단 참석 및 지원금 전달(10.12), 재대전 순천향의대 동창회 모임 참석(10.12 회장단), 순천향의대 재경 및 지역 대표 모임(10.15)

동창회 발전기금 모금 현황

현재까지 순천향의대 동창회 발전 기금모금에 참여해 주신 동문은 222명이며, 총 기금 모금액은 101,470,000원입니다.

기탁 및 약정은 이성근 2회 동창회장이 오천만원 기탁 및 약정하였고, 백상업 총무(4회), 원성윤 총무(9회), 함정식 재정(10회) 등이 각각 일천만원을 기탁해 주셨고 김대익(8회), 영암 김병원 지역임원)동문께서도 일만백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기수별로는 14회 노명래 기대표 등 41명, 강정협 5회 기대표 등 31명, 김창현 4회 기대표 등 21명, 구선곤 3회 기대표 등 21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순천향대 구미병원 순동회 회원은 전원(100%) 참여하여 입금하였습니다.

금번 동창회발전기금모금은 2011년7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약3개월 동안 모금하였으며,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동창회가 발전하도록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이체 바랍니다! 하나은행, 662-910022-17605, 순천향의과대학동창회, 월 1만원, 일시불인 경우: 연 10만원)

좋은 마음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바쁘고 모진 일상을 살면서
선한 마음을 잊고 살게 됩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나의 선한 마음을 되찾아서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읍시다.

글 · 사진 | 목아트

Letter of Thanks

서해 외연도에서 날아온 편지

지금부터 2년 전 아직도 그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09년 5월 11일 새벽 1시 30분경, 배 기관실 고장으로 배가 1시간 30분가량 떠내려갔습니다. 고장으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바위에 배가 걸치는 바람에 선원들이 바위에 내렸습니다. 외연도에서 함께 고기를 잡고 있던 분들이 중간 무전을 듣고와 우리 배를 끌어당길 때 파도에 휩쓸렸는지 선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물에 빠졌고, 우리 남편이 물에 뛰어 들어 그 선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한 사람도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우리 배를 구하러 온 배가 우리 남편과 함께 선원을 바다에서 구했을 때 이미 선원은 죽어 있었고, 우리 남편도 상태가 위급한 상황, 한 사람은 실종... 이런 배 사고 소식을 듣고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배로 외연도에 도착해 동네 보건소 소장님으로부터 빠른 응급 처치를 받았고, 경비정 배가 와서 어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항에 도착하였을 때 119를 보는 순간, 그때서야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육지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얼마나 울었는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응급처치 후 입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고, 일반 병실에 이틀간 입원을 하는 동안 서울에서 온 동생이 "형부 손이 많이 부은 것 같아?"라고 말을 해 그제야 확인을 하니 온몸이 다 부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찾아 초음파 검사를 하니 빨라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위급하다고...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해서 빨리 구급차를 불러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섬 보건소에서 '원격 영상 진료'를 통해 알게 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생각났고, 외연도 보건소장님의 소개로 권인숙 간호사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중환자실. 급성 신부전증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틀간 신장 투석을 두 번 받고나서야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차츰 소변의 양도 늘고, 전신 상태가 좋아져 일반 병실로 이동했을 때,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원격영상진료센터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그이가 어떻게 되어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덕분에 치료도 잘 받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또 자꾸 체한 것 같은 느낌이고, 숨을 쉴 때 가슴이 아픈 것 같다고 새벽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대전에도 종합병원이 있지만 느낌이 좋지 않다고 아픔 몸을 이끌고 새벽 6시에 다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찾게 되었고, 권인숙 간호사님께 또 한번의 어려운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분명 위급한 환자들도 많은 것을 알지만 내 남편이 우선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도와 주신 덕에 빠른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병명은 협심증이라고 했습니다. 심장내과 신원용 교수님과 권인숙 간호사님이 도와주신 덕에 3일 만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챙겨주셨던 권인숙 간호사님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또 응급의료센터와 심장내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전합니다.

2011년 9월 29일
김금순 님

